

PORTFOLIO STRATEGY

2026. 9. 14.

리서치센터 글로벌주식팀

서정훈 팀장, CFA

junghun1212.seo@samsung.com

김중한 수석연구위원

joonghan1.kim@samsung.com

이창희 수석연구위원

changhe01.lee@samsung.com

이영진 수석연구위원, CFA

youngjin91.lee@samsung.com

박준규 선임연구원

jun.kyu.park@samsung.com

유승민 선임연구원

seungmin.you@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9월 | 3주 차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증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증시

금리선물시장은 금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확률을 90% 전후 수준까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지난 금요일의 8월 CPI 결과도 결국 인상을 지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면서 동결에 대한 전망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물론 美 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에 따른 전화비 급등과, 유가 영향이 다분히 반영된 항공료 상승분 등을 걸러내고 보면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다만 연준이 이를 빌미로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본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이 한 달여 만에 50bp 가까이 급등했다는 점은 시장 스스로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7%에 육박하고, PCE 2% 물가 목표를 5년 동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여타 국가들이 적극적인 긴축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만 홀로 동결로 대응한다면, 이는 자칫 물가 억제에 안이한 모습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 반영하며 추가 상승세를 보일 여지가 크고, 이는 결국 연준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면서 단기 금리도 함께 끌어올리게 될 것이 유력하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번 FOMC에서 인상 단행과 함께 추가 긴축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한 의지가 시장으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다면, 장기채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간 프리미엄도 하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채 수익률 곡선 전반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물가에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상을 덜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시장 반응 함수 또한 이 같은 세팅 값을 보여준 이력이 빈번하다. 실제 지난 7월 FOMC에서 워시 연준 의장의 다소 온건한 발언이 확인되자 장기채 금리는 상승했던 반면, 8월 말 잭슨홀의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반응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긴축적인 메시지에도 위험자산 전반이 발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긴축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 왔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상태라면, 9월 FOMC의 인상 결정이 증시에 부담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연준의 매파적 대응에 장기 금리가 하락하거나 혹은 상방이 제약되는 현상이 확인된다면, 주식시장은 더욱 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뉴욕 증시가 견조한 이익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탄력이 저하된 배경에는 높아진 장기 금리에 따른 밸류에이션 멀티플 압착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통화정책 이벤트 통과와 함께 불확실성이 잦아들었다는 것 그 자체는, 투자자들이 보다 편더멘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 계속)

EXECUTIVE SUMMARY

같은 맥락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역시 과도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 공조에 힘입어 엔화의 절상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2024년 여름 당시 경험했던 엔화 강세와 증시 급락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행(BOJ)은 다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매파적 행보를 선보였고, 연준은 급히 높아진 실업률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시기였다. 정책 방향이 서로 반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짚었듯 연준은 물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역시 이미 익히 예견된 이벤트이다. 여기에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했듯이 금리 인상을 통한 엔화 강세는 일본 통화 당국이 미 국채를 매도하여 엔화를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을 낮춤으로써 미 국채 수익률의 진정을 도모해 줄 수 있다. 지난 8월 일본 외환 보유고는 약 800억 달러 감소하며 월간 최대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만큼 미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이전에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중동 지역 내 전운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앞서 언급한 낙관적 전망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체감하는 중동 악재는 올해 봄과 달리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란과 관련된 뉴스 건수는 3~4월 고점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높아진 유가와 달리 선물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만큼 현 유가 레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실 도처에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상존함에도 시장이 대응할 태세를 갖추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 미국 경기와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이 기저에 자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높아진 금리보다 더욱 강력한 성장이 기대된다면, 투자를 거리낄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증시의 핵심 테마인 AI Capex 사이클에도 통용된다. 앤스로픽 내부 경제 분석팀은 AI 도입에 따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30년경 실질 기준 최대 연 15.4%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5년마다 2배가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보다 완만한 시나리오하에서도 5.4%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또한 닷컴 버블의 정점인 4.7%를 훌쩍 상회할 만큼 경이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프론티어 AI 연구소의 내부 인식이 이러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효용을 이 정도로 가늠하고 있다면, 이들의 투자는 멈출 이유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 (서정훈)

PART 01

Global Portfolio

- 1) Top Pick List
- 2) Watch List

Samsung Securities

Global Portfolio

Top Pick List

국가	종목명	종목코드	업종	투자 포인트
미국	엔비디아	NVDA US	AI 반도체	• 이익 가시성, 밸류에이션을 모두 고려 시 AI 반도체 업종 내 가장 매력적
미국	알파벳	GOOGL US	플랫폼	• 풀스택 AI 역량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AR 글래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배력 확장
미국	아마존	AMZN US	이커머스	• 클라우드 가속 성장, 로봇 내러티브 등에 따른 리레이팅 가능
미국	AMD	AMD US	AI 반도체	• Agentic AI발 CPU 쇼티지 수혜뿐 아니라 GPU 추가 수주 모멘텀도 가능
미국	씨게이트	STX US	레거시 반도체	•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HDD 수요 확대 및 경쟁사 대비 빠른 HAMR 상용화로 수익성 개선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PLTR US	소프트웨어	• 차별화된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으로 매출 성장 가속 및 영업 레버리지 확대
대만	TSMC	TSM US	AI 반도체	• CapEx상향에도 타이트한수급 지속. CoWoS, 첨단 공정 ASP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
미국	프리포트 맥모란	FCX US	일차금속	• 구리 가격 강세에 생산량 회복까지 더해지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
미국	메타	META US	플랫폼	• AI 모델 경쟁력 강화와 후속 모델 출시 기대,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미국	블룸 에너지	BE US	산업재	•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빠르게 공급, 연소가 없어 환경 인허가에도 유리해 수요 확대 가능

연간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	20.37%	벤치마크 수익률	12.11%	초과 수익률	8.25%
--------------------	--------	----------	--------	--------	-------

참고: 2026. 9. 11. 종가 기준. 벤치마크는 MSCI ACWI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Global Portfolio

Watch List | 미국

종목명	종목코드	업종	P/E (배)	1개월 수익률(%)	YTD 수익률(%)	투자 포인트
테슬라	TSLA US	모빌리티	177.7	7.5	-18.7	• 휴머노이드, FSD 등 피지컬 AI 선두 주자로, 옵티머스 사이버 캡 양산 기반 리레이팅 가능
마벨 테크놀로지	MRVL US	AI 칩·통신	41.0	6.3	177.8	•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인터커넥트, ASIC 사업 고성장 가능
샌디스크	SNDK US	메모리 반도체	7.4	6.9	588.1	• NAND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가격 상승 모멘텀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 기대
세레브라스 시스템스	CBRS US	AI 반도체	282.7	-16.9	N/A	• 고속 추론 기반 AMD, AWS 컴퓨팅 플랫폼 통합으로 고객 접점 및 추론 사용량 증가 기대
네비우스	NBIS US	소프트웨어	N/A	-12.0	168.3	• 장기 캐파 병목 국면에서 네오 클라우드 기업의 필요 지속. 단기 트레이딩 옵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US	반도체	6.4	2.7	241.7	• AI 추론 사이클 도래와 함께 반도체 쇼티지 심화. 공급자 우위 시장 지속 가능
버티브 홀딩스	VRT US	산업재	30.8	-10.5	58.7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밀도 상승으로 전력 분배 및 열 관리 시스템 수요 확대 가능
로켓 랩	RKLB US	우주	N/A	-21.4	-9.8	• 검증된 발사 경쟁력에 Neutron 확장. 수직계열화를 통한 성장 가속
카메코	CCJ US	원자력	60.8	-1.1	5.7	• 세계 원자력 Upstream 대표 기업, 우라늄 수요 및 웨스팅 하우스 지분 가치 재평가 가능
코히런트	COHR US	광통신	29.1	-6.7	65.4	• 광통신의 핵심인 레이저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빠른 생산량 확대로 성장 가속화
스페이스X	SPCX US	AI·우주	123.4	7.0	7.0	• 풀 스택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우주 데이터 산업 본격화 가능
록히드 마틴	LMT US	방산	16.4	-12.3	8.4	•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에 따른 대규모 공급 계약 수주 가능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MAT US	반도체 장비	25.4	-14.6	77.6	• AI·미세공정 전환 가속에 따른 핵심 공정 장비 수요 증가 가능
인텔	INTC US	AI 반도체	53.4	-1.5	179.0	• AI 인프라 내 CPU 병목 부각으로 서버용 CPU 수요 회복 및 차세대 제품 믹스 개선 가능
램 리서치	LRCX US	반도체 장비	29.9	-11.5	74.2	• HBM·NAND 등 공정 복잡도 증가에 따른 장비 수요 레버리지 기대

참고: 2026. 9. 11.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E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Watch List | 범중국

국가	종목명	종목코드	업종	P/E (배)	1개월 수익률(%)	YTD 수익률(%)	투자 포인트
대만	액톤테크	2345 TW	IT 하드웨어	17.6	-17.0	59.1	- 스위치 업그레이드 수요와 신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확보로 고성장 - AI 가속기 모듈, 인터커넥트, 통합 랙 솔루션 등 사업 영역 확장 중
중국	나우리지 아틀라스 테크놀로지	02513 HK	AI	N/A	-39.8	N/A	-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와 엔터프라이즈에 집중하는 중국판 앤스로픽 - 온프레미스 역량을 기반으로 보안 민감 고객의 AI 전환 수요 선점 가능
중국	알리바바	09988 HK	플랫폼	14.5	-11.8	-24.7	- AI 수요 급증에 따라 클라우드 가격 협상력 제고 - Qwen 3.6 Plus 폐쇄형 전환으로 본격적인 수익화 추진
중국	한무기	688256 SH	반도체	62.1	-5.9	14.3	- AI 가속기 개발사로,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 - 중국 내 GPU 자립화 흐름에 따른 수혜 전망. '25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	09880 HK	로봇	N/A	-14.2	-38.3	- 시장 대비 Valuation Premium을 뒷받침하는 성장 잠재력 보유 - 공정 자동화 사업 턴어라운드, Smart Industry 사업의 호조 기대
중국	북방화창	002371 SZ	반도체	45.6	-14.2	38.1	- 글로벌 5위 장비사로 식각/증착 중심의 장비 포트폴리오 확보 - CXMT / YMTC 상장 시 IPO 자금을 신규 라인 증설에 투입 가능
중국	이노벤트	01801 HK	제약	42.1	-1.7	22.7	- 면역항암제의 중국 의료보험 등재로 안정적 매출원 확보 - 세계 최초로 GCG/GLP-1 이중 작용 비만 치료제 상용화
중국	레노버 그룹	00992 HK	IT 하드웨어	12.3	-10.3	238.0	- 기존 PC 중심 이익 구조에서 AI 서버 이익 기여도가 빠르게 확대 - 기업의 온프레미스 서버 수요가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부상
중국	CATL	03750 HK	2차 전지	19.2	-16.1	9.2	- 대용량 ESS 수요가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을 견인 중 - 유럽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해외 시장 비중 확대 가능
대만	AVC	3017 TW	IT 하드웨어	23.9	5.4	123.4	- 서버용 냉각 팬 시장 점유율 30% 이상으로 글로벌 1위 - 엔비디아에 쿨드플레이트 공급, 액체 냉각 확대 수혜 가능

참고: 2026. 9. 11.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E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Watch List | 일본 & 유럽

국가	종목명	종목코드	업종	P/E (배)	1개월 수익률(%)	YTD 수익률(%)	투자 포인트
일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9984 JP	인터넷·통신	44.7	17.3	48.6	- OpenAI·ARM 등 핵심 AI 투자 자산 재평가 및 IPO 기대감 - AI 밸류체인 노출도 확대와 비전펀드 회복에 따른 자산 가치 부각
일본	도쿄일렉트론	8035 JP	반도체	26.0	-13.5	49.9	- AI 반도체 투자 확대에 FY26 연간 실적 가이드선 상향 - AI → HBM → DRAM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Capex 확산 수혜 가능
일본	무라타 제작소	6981 JP	전자 부품	32.6	-11.5	126.5	- AI 서버용 MLCC의 구조적 수요 증가로 인한 타이트한 공급 예상 - 서버 고객사들은 무라타와 같은 Tier 1 공급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9983 JP	소비재	35.2	-14.1	16./8	- 해외 유니클로 고성장 및 일본 내 방일 수요 효과 지속 - 글로벌 매장 확장 및 브랜드 경쟁력 기반 실적 성장 가능
일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8316 JP	금융	13.6	-0.8	37.1	- 기업금융 중심 대출 구조로 높은 금리 인상 민감도 보유 - 금리 인상 효과가 ROE에 빠르게 반영되며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진입
유럽							
네덜란드	ASML	ASML US	반도체 장비	30.7	-8.1	58.7	- AI·선단 공정 투자 확대에 따른 EUV 독점 수혜 지속 - High-NA 전환과 고객사 CapEx 회복에 따른 성장성 부각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AZN US	제약·바이오	14.4	1.9	-8.7	'30년 800억 달러 매출 가이드선 -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에서 다수의 긍정적 임상 소식 기대
독일	라인메탈	RHM DE	방위산업	20.5	-14.9	-36.5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유럽 방위비 확대 가능
네덜란드	ST 마이크로	STM US	반도체	22.5	-4.5	98.6	- 전력 변환 반도체 및 광통신 부품 공급으로 성장 동력 확보 - 데이터센터 매출 가이드선: FY2026 10억 달러, FY2027 20억 달러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SU FR	산업재	25.2	-5.9	23.9	-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빌딩, 산업, 인프라 부문에서도 모두 수요 강세 -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원자재 및 관세 부담을 상쇄하며 이익률 개선

참고: 2026. 9. 11.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E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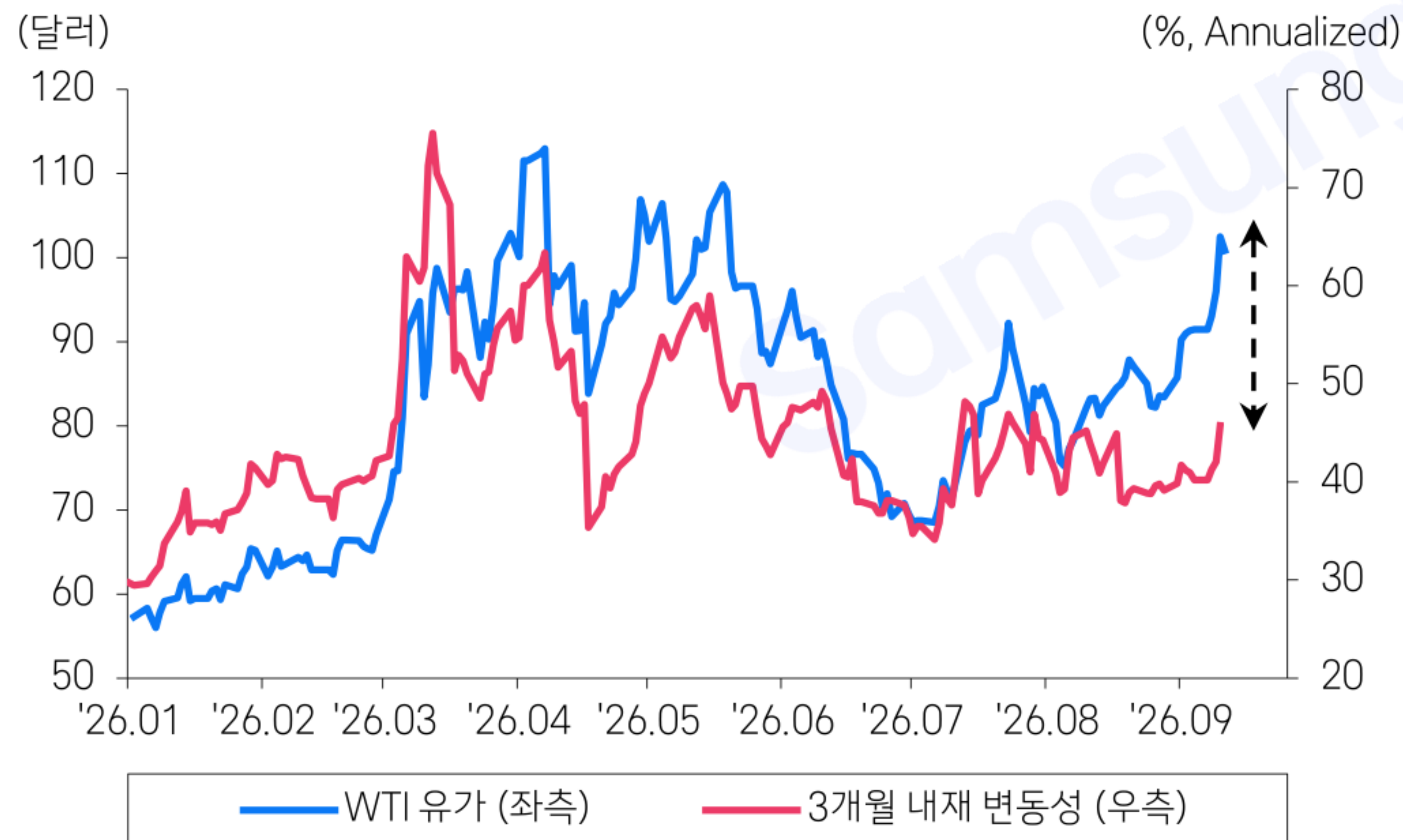
Macro & Market Issue

Samsung Securities

중동 갈등 재점화는 다시금 고유가를 소환 | 그러나 이전과는 기류가 사뭇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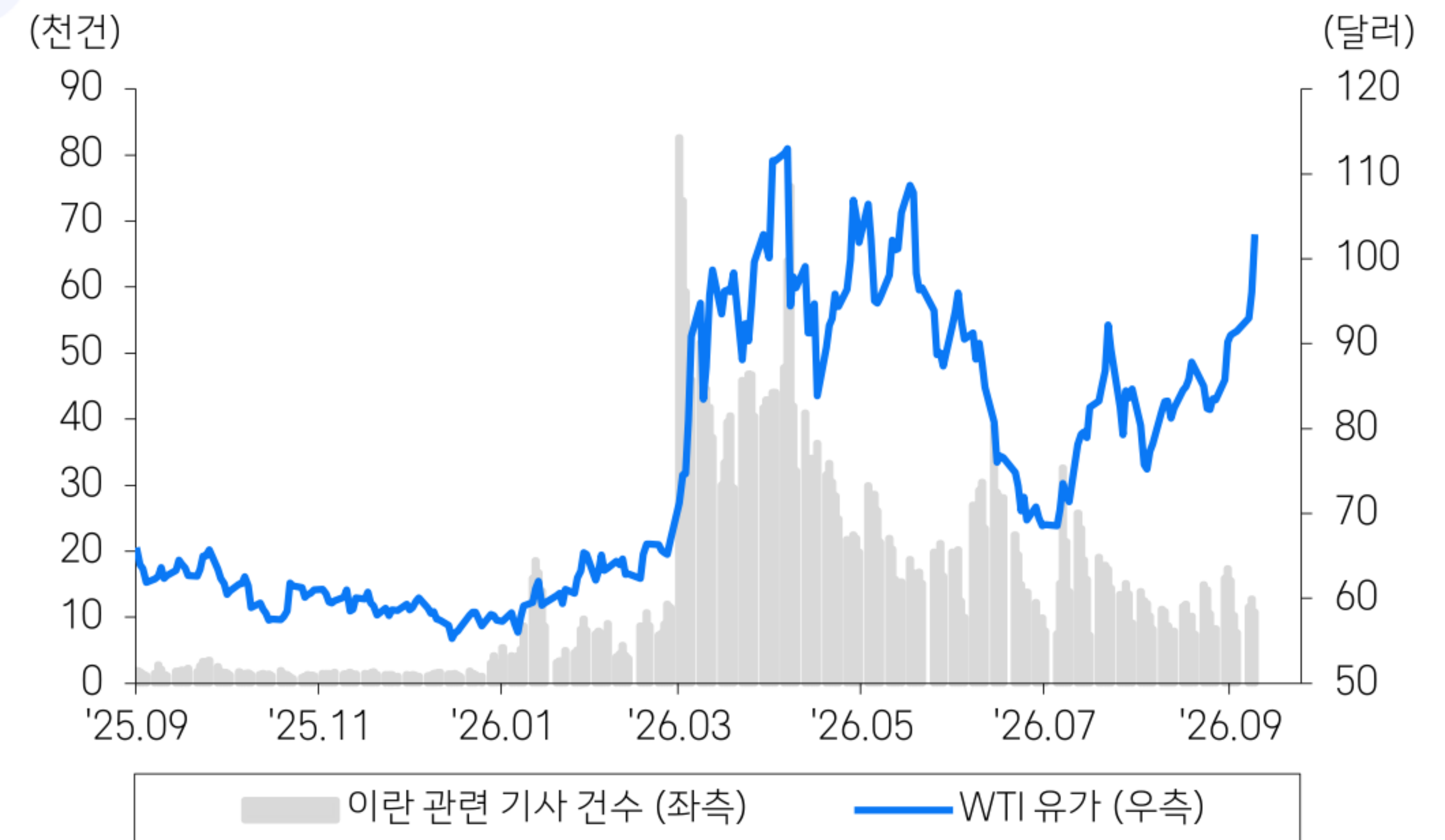
-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산유국의 주요 우회로로 활용되던 홍해 지역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양대 유종은 100달러 다시 돌파**
 - 다만 원유 선물의 내재 변동성은 지난 봄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 이는 과거와 같은 부정적 서프라이즈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범주 내에서 유가가 등락 중임을 시사. 즉 같은 100달러 레벨이어도 시장이 체감하는 충격파가 다른 셈
- ▶ **사실 기사 건수 등을 살펴볼 때 현재 이란에 대한 시장 관심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 사태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어느 정도 대비된 모습.**
 -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란과 관련된 뉴스 건수는 지난 3~4월 정점 당시와 비교하여 7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중. 그만큼 현재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이란이 메인 변수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 전면전으로 확전 여부는 예의 주시 대상이겠으나, 현 수준의 갈등 국면에서 risk-off로 대응하는 것은 고민 필요

WTI 유가 선물 가격과 내재 변동성 추이



참고: 3 Month 100% Moneyness Implied Volatility 기준
자료: Bloomberg

이란 키워드로 검색되는 블룸버그 뉴스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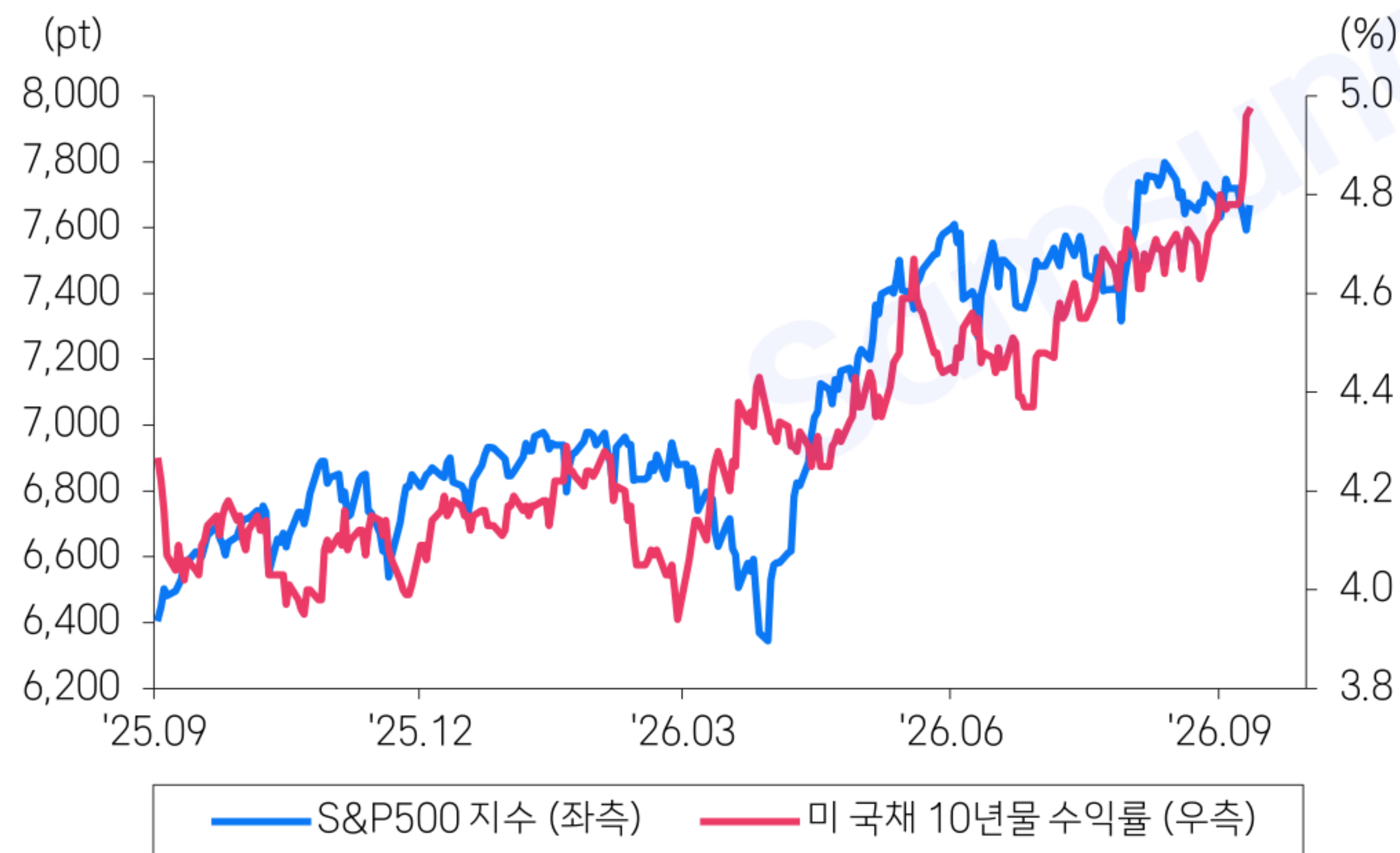


참고: Bloomberg News Trend 집계 기준
자료: Bloomberg

재차 높아진 미 국채 수익률 (1) | 견조한 미국의 경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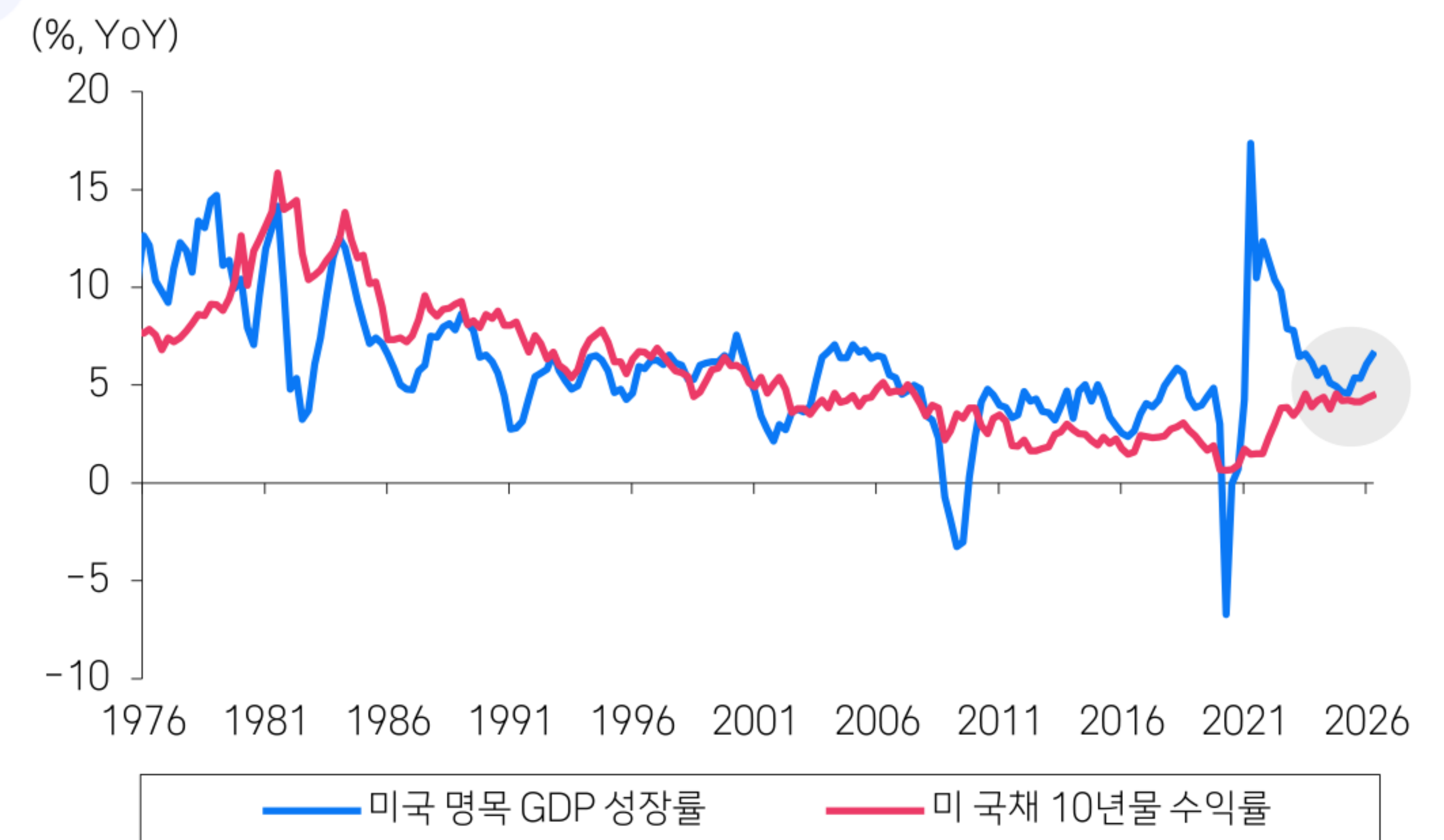
- ▶ 올 한해 미 국채 금리 상승세는 위험자산 상승과 동행했던 적이 더욱 빈번. 최근 주식시장도 일부 조정 있었지만 여전히 금리 급등세 대비 낙폭 제한
 - 모든 자산 가격의 벤치마크 역할을 담당하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6월 말 저점 대비 50bp 가까이 급등한 상태이지만, 동 기간 S&P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음은 물론, 최근 금리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고점비 낙폭은 -3% 전후에서 그치는 중. 금리의 가파른 오름세 비해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
- ▶ 최근 금리 상승세는 美 경제의 강력한 펀더멘털도 한 몫을 담당.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장 금리는 적정할 수도
 - 미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 또한 강건한 경기 여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국채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면, 그 잉여분만큼 주식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셈

최근 1년간 S&P500과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 - 큰 틀에서 동행



자료: Bloomberg

美 명목 GDP와 국채 10년물 - 경기 여건 대비 금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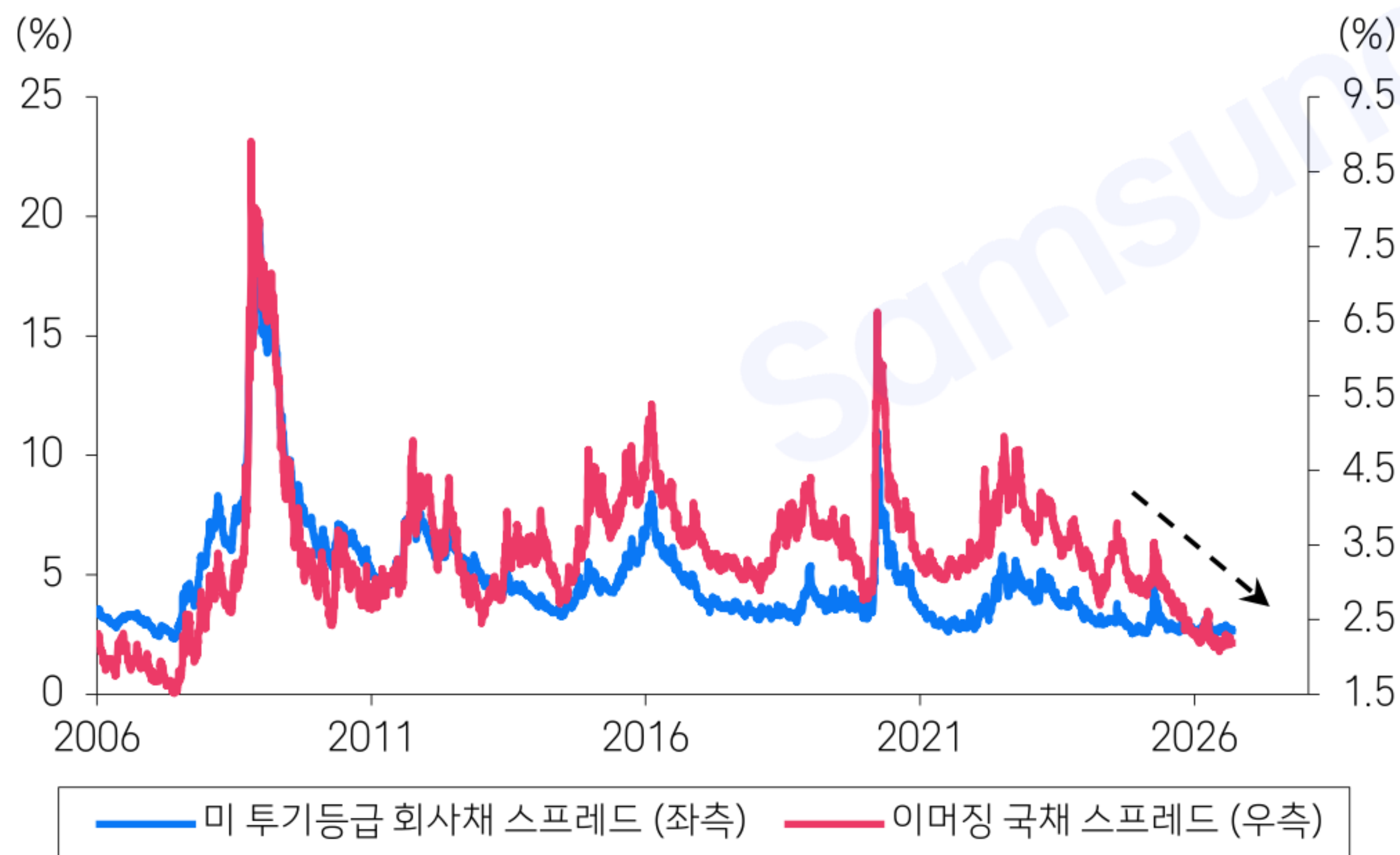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재차 높아진 미 국채 수익률 (2) | 그럼에도 금융 여건은 온건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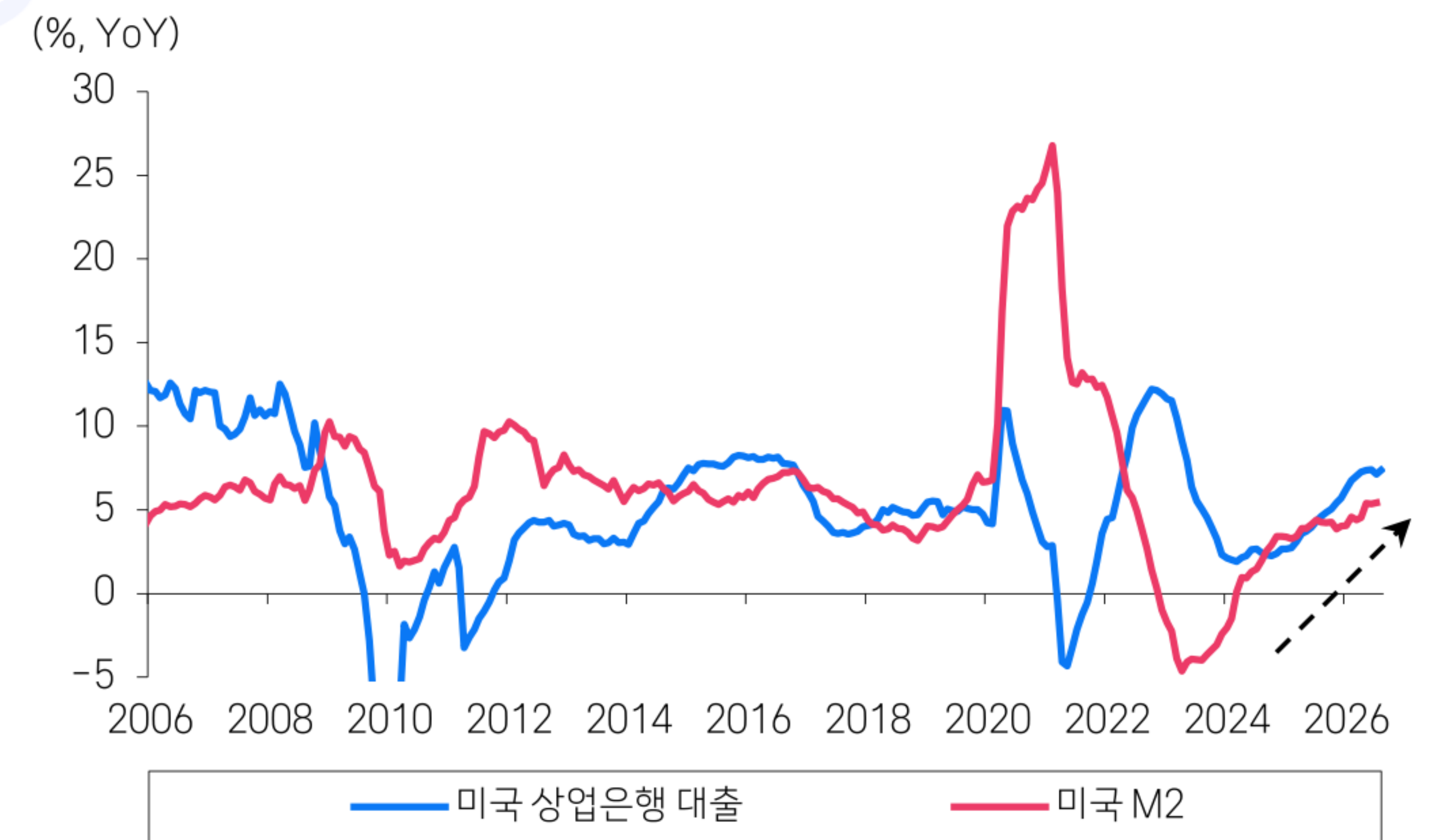
- ▶ 고금리 국면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과 이머징 국채에 적용되는 있는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오히려 하향세 그리는 중
 - 금융시장 내 가장 약한 고리로 간주될 수 있는 시장에서 별다른 흠결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고금리 역시 마냥 위험한 레벨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가능
- ▶ 실제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업은행의 대출은 증가 추세를 유지. 이것은 최근 미국의 광의의 통화(M2) 증가분을 상당분 설명
 - 고금리 여건에도 자금 수요가 많은 현상 또한 미국의 견조한 경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주지하는 바와 같이 AI Capex 등 미국 내에서는 각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미 투기등급 채권과 이머징 국채에 반영되는 위험 스프레드 추이



참고: US High Yield Corporate Bond OAS 및 JPM EMBI Spread 기준
자료: Bloomberg

美 상업은행 대출 증감률과 M2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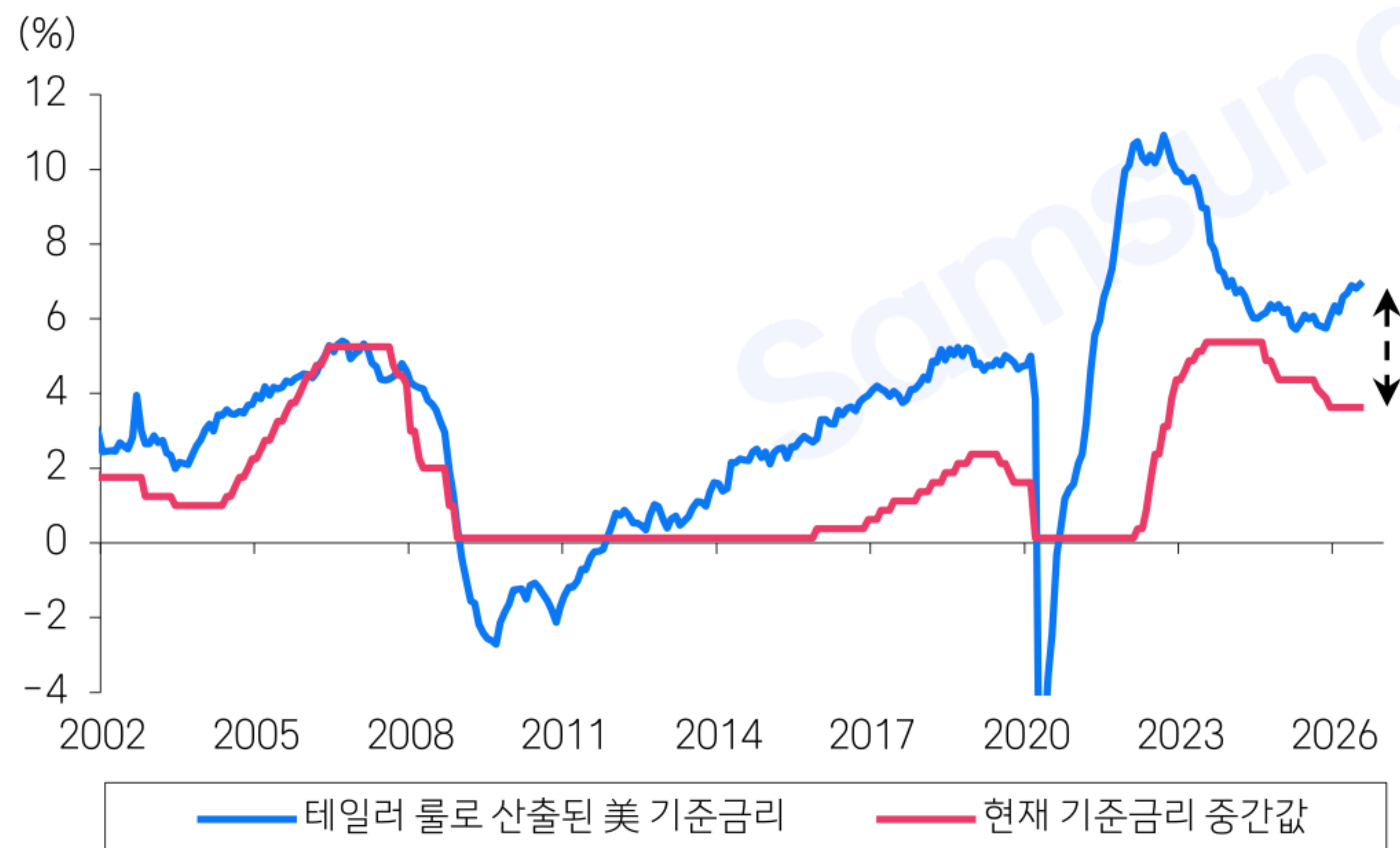


참고: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All Commercial Banks 기준
자료: Bloomberg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지라도 | 현 경기와 금융 여건은 수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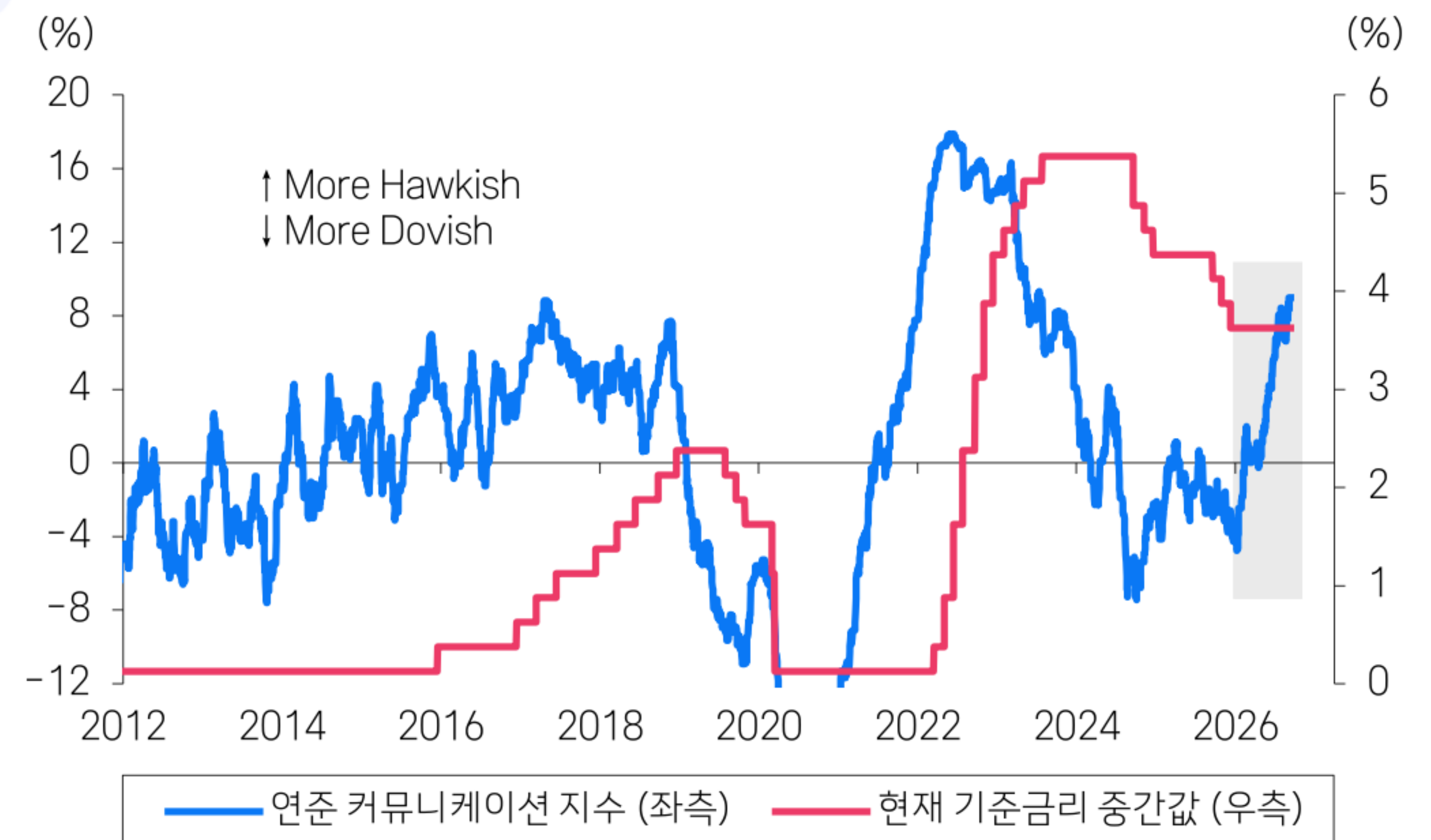
- ▶ **실업률과 물가 조합 등으로 산출된 테일러 룰 기반의 기준 금리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 그만큼 경기 상방 압력이 상존했던 것**
 - 현재 연준 정책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철저히 경제 지표에 기반한다면, 9월 금리 인상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美 경기 여건이 급히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 ▶ **이미 연준 위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당분 매파적으로 경도된 상태였고, 시장도 이를 감안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서 반영해 왔던 점 주목**
 - 통상 금리 인상이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는 서프라이즈 성격을 지닐 때가 대다수. 만약 금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최소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잭슨홀 연설에서도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매파적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미리 사전적 예고도 해두었던 참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연준의 물가 통제 의지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 금리의 상승세를 재차 자극할 소지가 다분

테일러 룰로 산출한 미 기준 금리와 실제 기준 금리 추이 - 최근 격차 확대



참고: Baseline Taylor rule estimate for U.S 기준
자료: Bloomberg

연준위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지수와 기준 금리 추이 - 앞서 매파적으로 변모



참고: Bloomberg F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기준
자료: Bloomberg

2년 전 경험했던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 재현? |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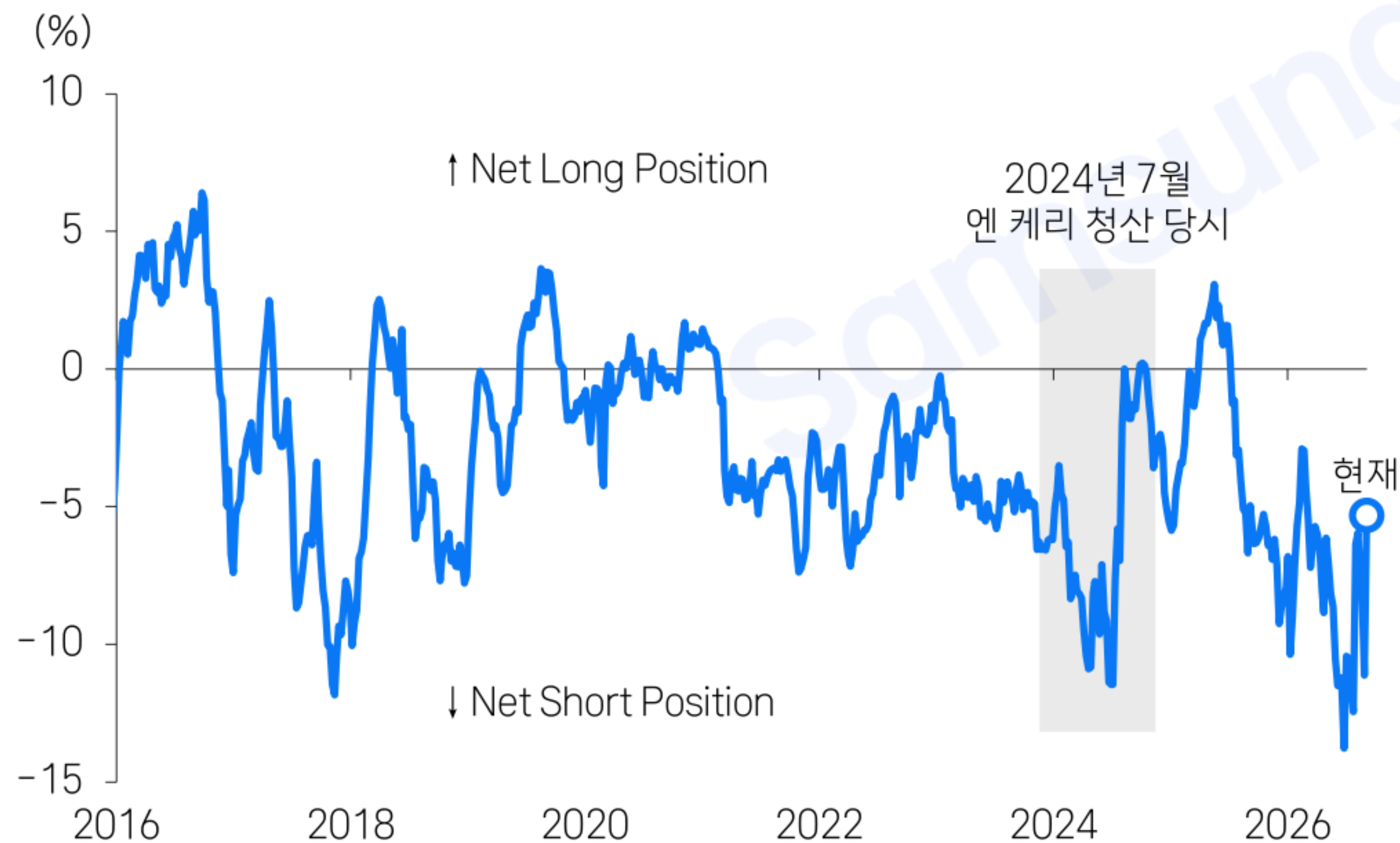
▶ 최근 美日 정부 공조 개입 등의 영향으로 엔 환율이 가파르게 절상되면서, 2024년 7월 경험한 엔 케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회자되는 중

-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 달리 레버리지 펀드들의 엔화 숏 포지션이 극심하지 않은 상황. 더불어 2024년 7월 일본은행(BOJ)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과 함께 추가 인상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했고, 반대로 당시 연준은 실업률 급등과 함께 금리인하를 일찌감치 예고해야 했던 상황. 즉 양 통화 당국의 정책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던 셈. 현재는 두 통화 당국 공히 인상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 이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 차이는 많이 좁혀져 있고,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도 일찌감치 시장에 노출된 점 고려하면 시장 충격은 제한될 전망

- 미국과 일본의 매크로 여건과 정부 개입 의지 등을 감안하면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양한 포지션 청산을 일으키며 시장 급변을 야기할 확률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이미 엔 환율은 한 달 동안 7% 전후의 절상 흐름을 나타냈지만, 동 기간 지수 낙폭은 제한됐던 점 상기 필요

레버리지 펀드들의 엔화 선물 포지션 추이 - 2년 전만큼 붐비지 않은



자료: Bloomberg

미국과 일본 국채 10년물 스프레드 추이 - 2년 전만큼 확대되어 있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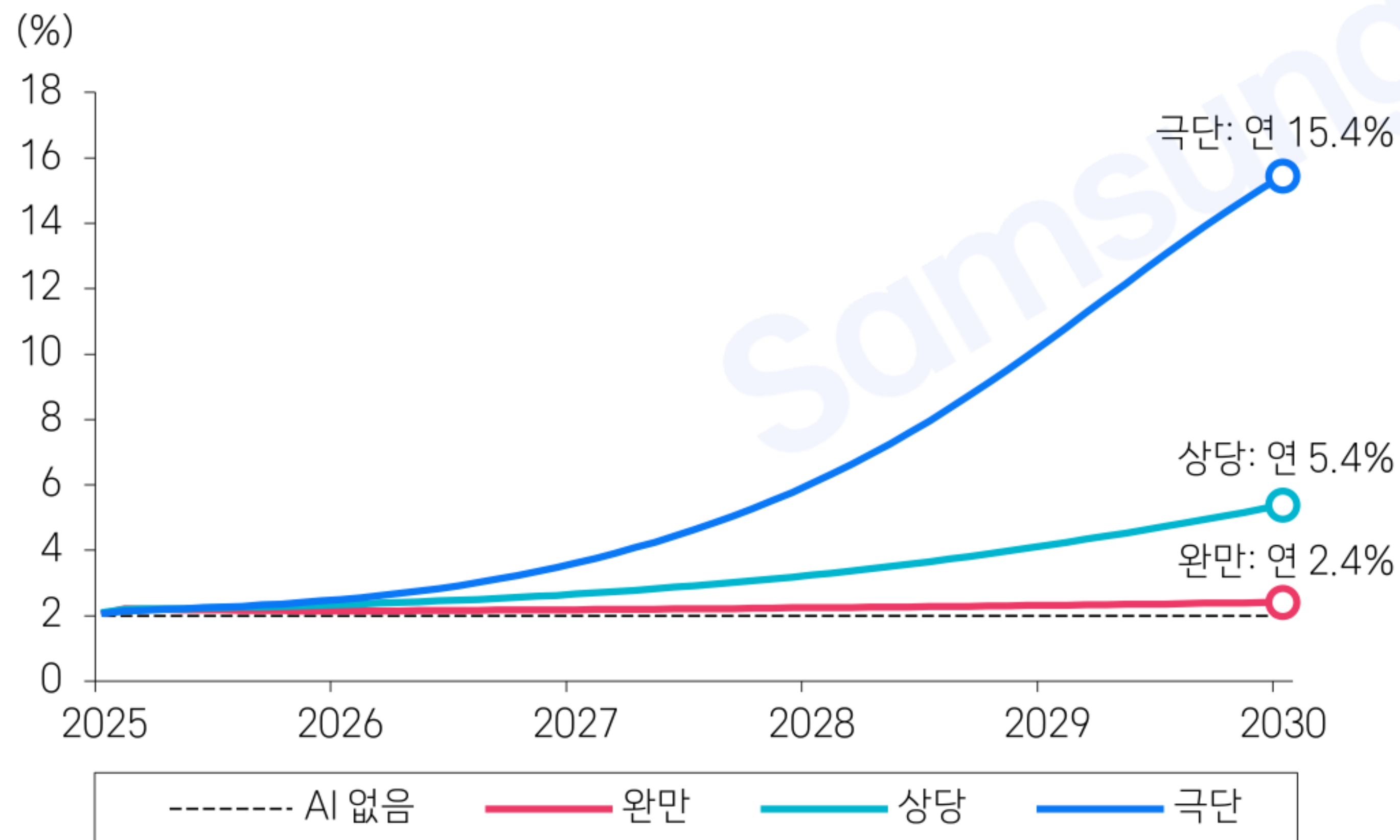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I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논의되기 시작 | 엔스로픽 경제팀이 전망한 낙관적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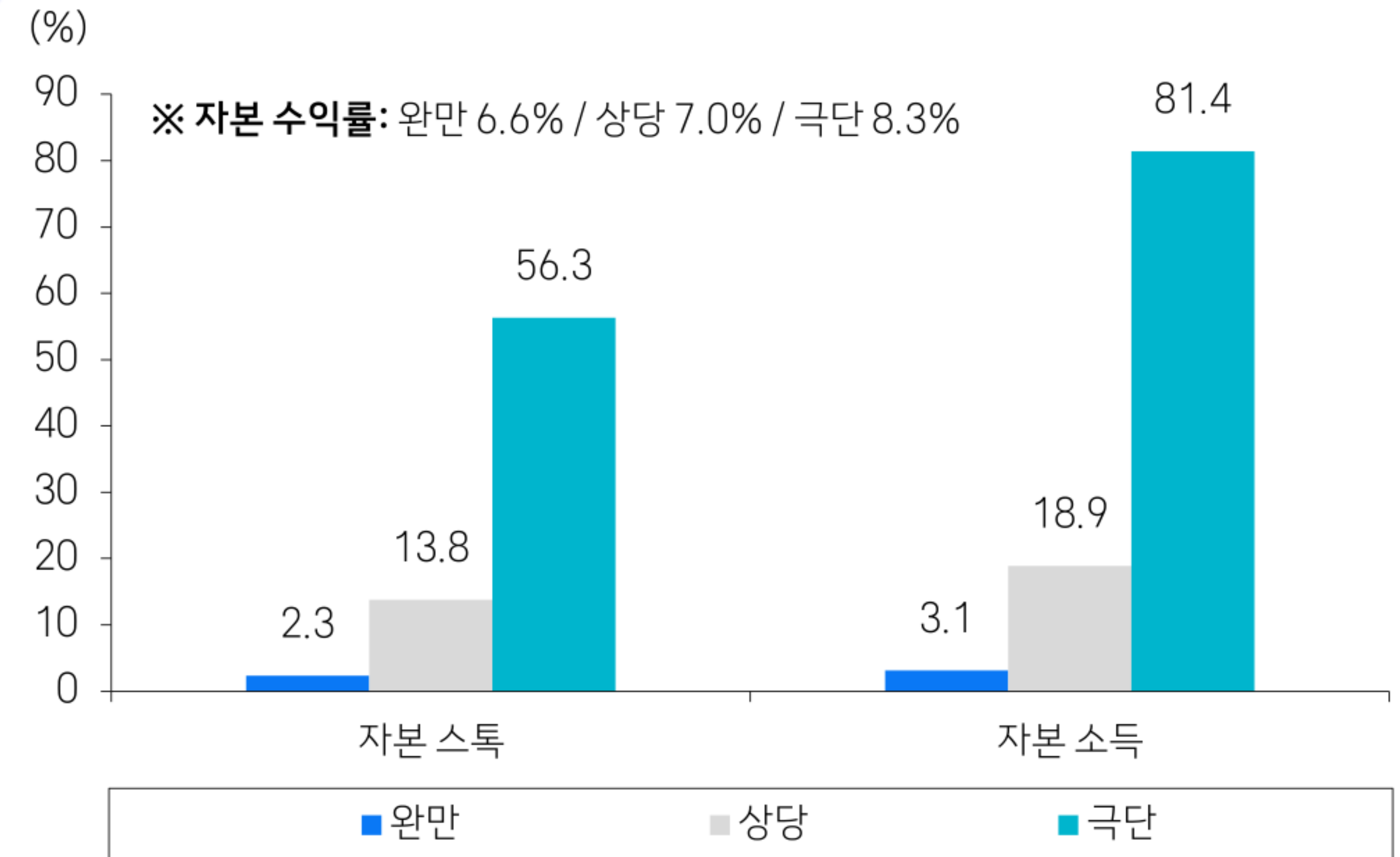
- ▶ 엔스로픽 경제팀은 AI가 2030년까지 美 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만·상당·극단 시나리오로 제시. 도입 본격화되면 내년 기점으로 격차가 뚜렷이 확대
 - 2030년 GDP 성장률은 완만 2.4%, 상당 5.4%, 극단 15.4%(AI가 없는 경로 2.0%). 상당 시나리오만으로도 닷컴 붐 정점(1999년 4.7%)을 넘고, 극단 시나리오 오는 1인당 소득이 5년마다 두 배가 되는 속도의 전례 없는 성장. 주목할 것은 성장의 과실이 노동보다 자본에 귀속될 것으로 경제팀은 분석
- ▶ 실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프론티어 AI 랩이 자체 경제팀과 주류 성장경제학자의 이름으로 이런 숫자를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
 - 프론티어 AI 연구소가 경제적 효용을 이만큼 크게 보는 이상 AI 투자는 쉽게 사그라들기 어렵다고 판단 가능. 수익 분배의 관건은 자본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즉 컴퓨트 확충 속도에 달려 있다고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경로 - 당장 내년인 2027년 이후 격차 확대



참고: 각 연도 1월 기준 직전 12개월 GDP 성장률. AI가 없는 경로는 연 2.0% 성장 가정
 자료: Anthropic Economics, 9월 10일 공개 논문 기준

2030년 시나리오별 자본 스톡·자본 소득·자본 수익률 - 모두 확대



참고: 자본 스톡·자본 소득은 AI가 없는 경로 대비 증가율, 순수익률은 수준(AI가 없는 경로 6.5%)
 자료: Anthropic Economics, 9월 10일 공개 논문 기준

GPT-Astra가 보여준 놀라운 성능 | AI Capex의 당위성을 높이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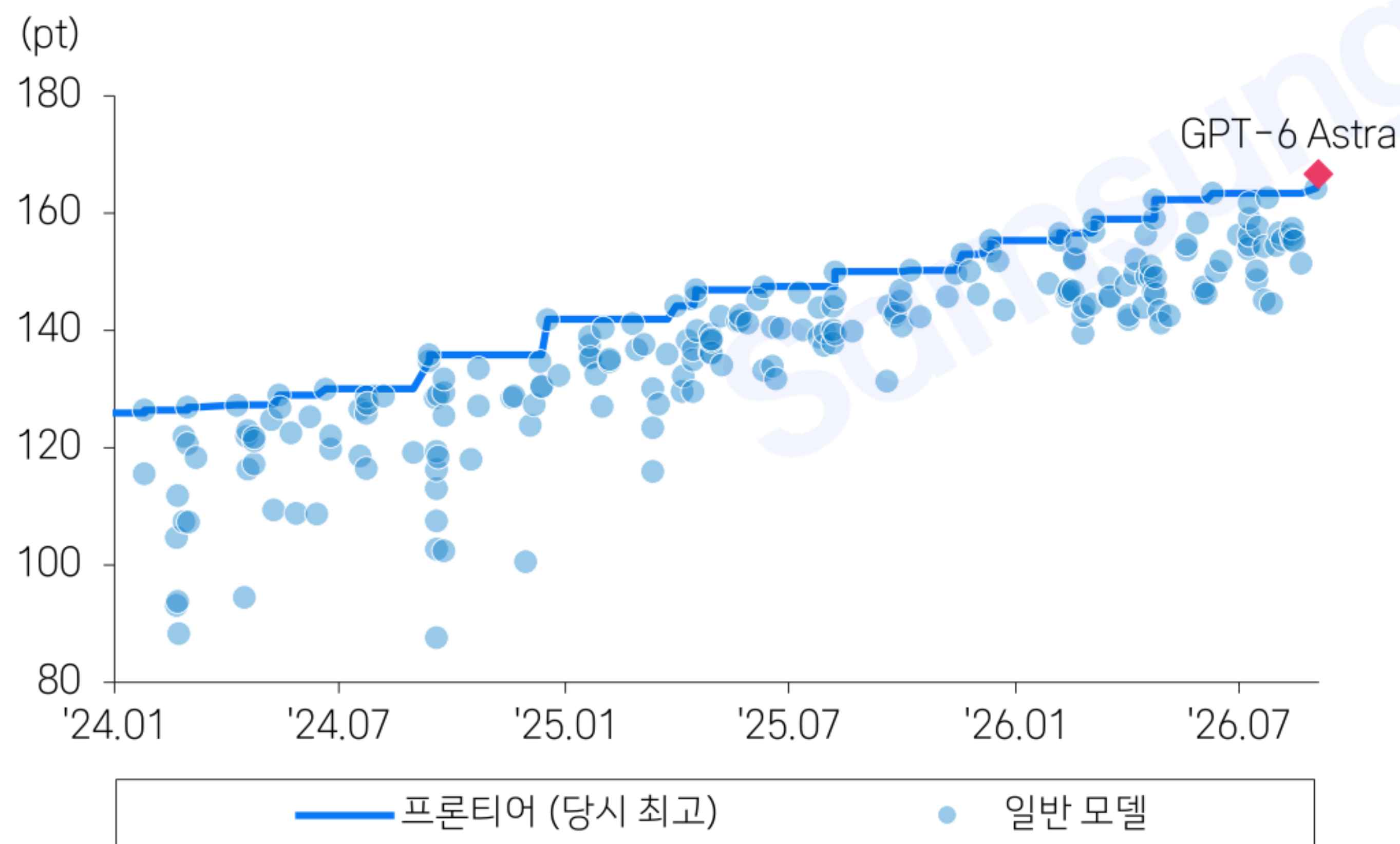
▶ GPT-Astra는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AI의 가능성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

- 단순히 일상 생활을 돕는 챗봇 역할을 넘어, 장기간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에이전트를 지나, 인간이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도전할 수 있는 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극. 이는 과학 혁명을 통한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AI를 통해 구현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 이를 계기로 IT 업계는 물론, 나머지 영역에서도 AI 투자의 당위성을 더욱 크게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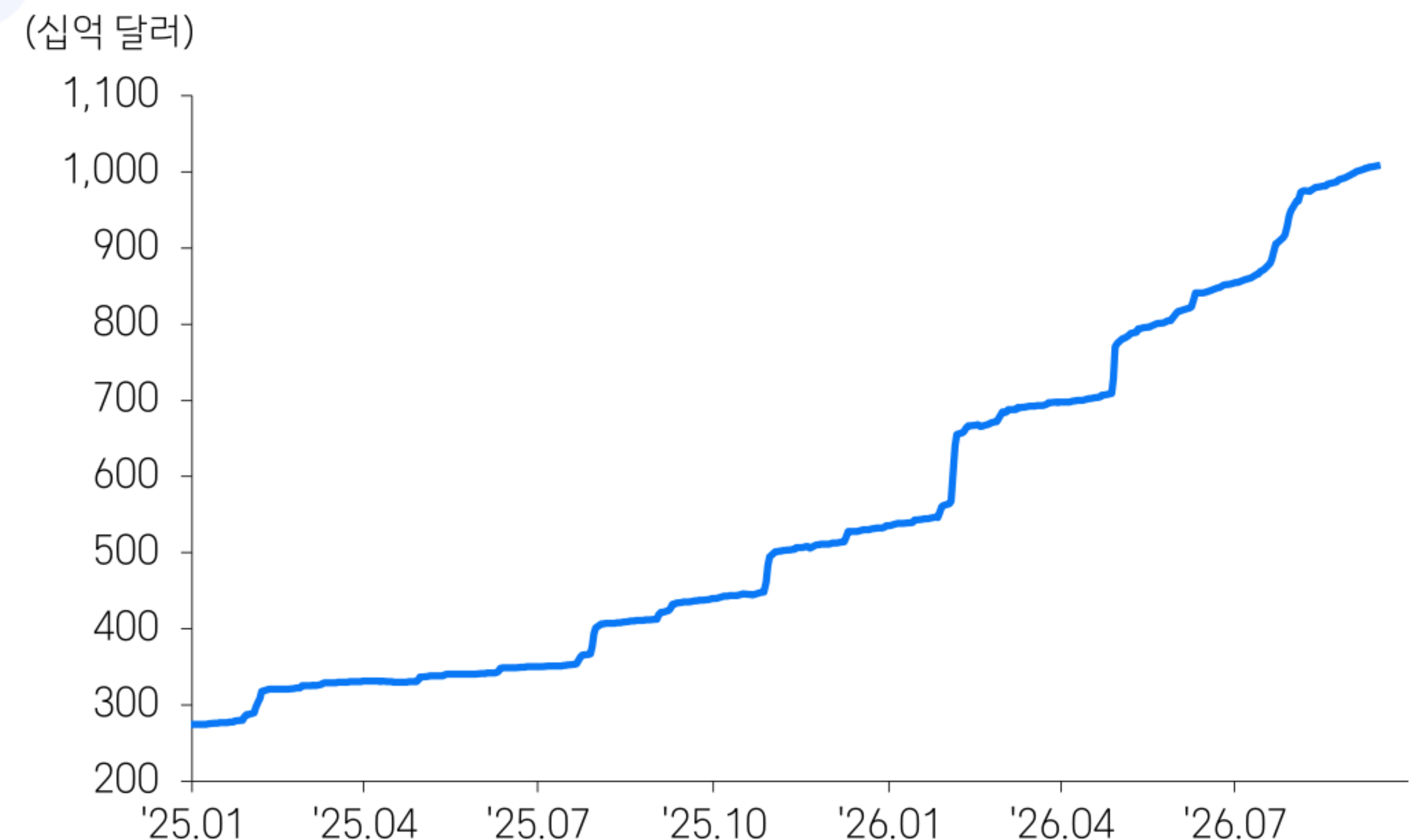
▶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은 실적 시즌 이후에도 재차 증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지난주 데이터센터 Capacity를 '32년까지 3배 확장 예고

- AI 기술이 발전이 재차 진행되는 가운데, 컴퓨트 파워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식지 않는 중.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계획 역시 비이성적 과열에 빠진 기술 경쟁이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기반한 경영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조기 종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프론티어 AI 모델들의 벤치마크 성능 개선 추이 - 투자에 비례한 상승세 지속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전망 - 지속 상향 중



참고: EPOCH Capabilities Index 기준
자료: Epoch AI Benchmarking Hub

참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의 12개월 선행 자본 지출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여전히 매력적인 이익률 구현 중인 빅테크 |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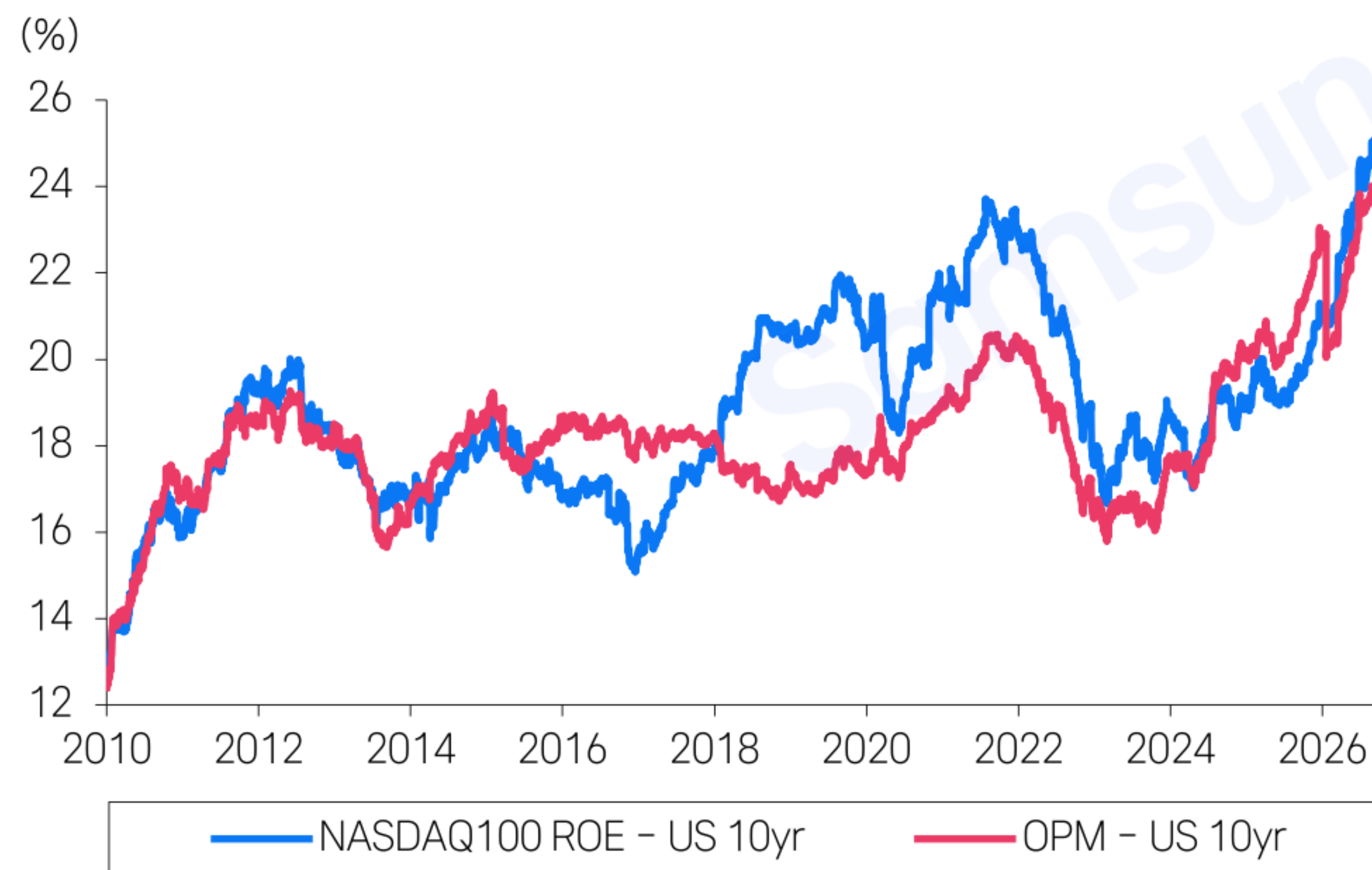
▶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압박 받는 중. 그러나 이들의 각종 마진율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주목

- 미국 대형 기술주 그룹의 자기자본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현재 역대 최고 수준. 최근 미 국채 10년물의 상승세와 견주어도 여전히 이들의 재무적 마진율은 경쟁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 여전히 가장 이익 가시성이 높은 그룹은 AI 인프라 관련 그룹. 금리 하방 전개가 녹록치 않은 구간임을 고려하면 이들 중심의 대응이 여전히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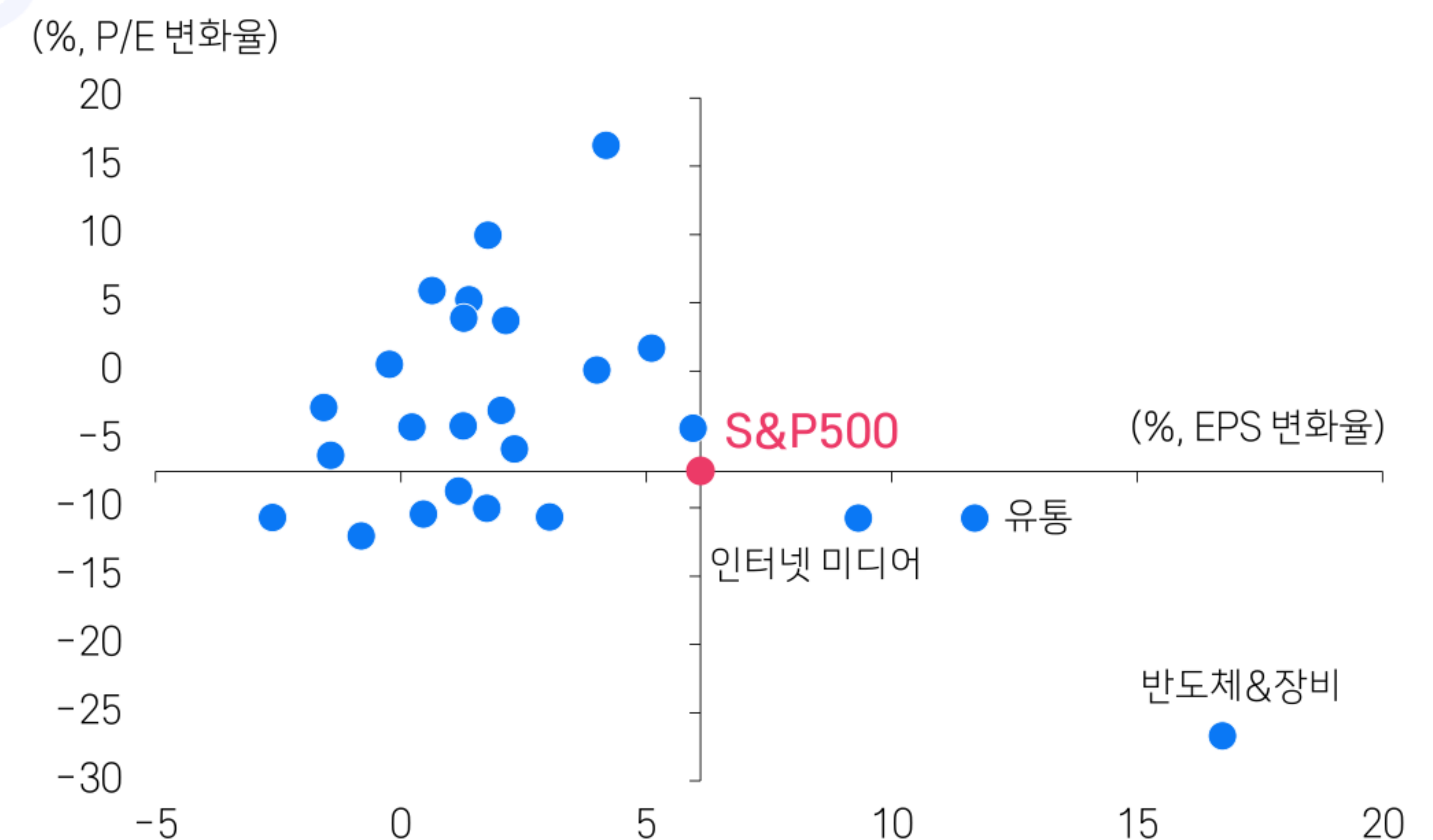
- 현재 시장의 논리는 높아진 금리보다 더 매력적인 수익력을 증명해 내는 것이 관건. 단순히 내러티브만 구비된 성장주 유형은 지속 부침을 겪을 것으로 예상. 여전히 가장 높은 이익 가시성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그룹은 반도체 관련주임을 주목

美 대형 기술주 그룹의 ROE와 OPM 추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차감 기준)



참고: NASDAQ100 Index의 12개월 선행 ROE 및 OPM 기준
자료: Bloomberg

S&P500 산업그룹별 EPS와 P/E 변화율 추이



참고: 12개월 선행 EPS 및 P/E의 최근 3개월 변화율 기준
자료: Bloomberg

PART
03

Global Equity Picks

Samsung Securities

Global Equity Picks Top Pick List

국가	종목명	종목코드	업종	시가총액 (조 원)	편입 후 수익률 (%)		
					수익률	BM 대비	편입일
미국	엔비디아	NVDA US	AI 반도체	7,055	15.59	3.95	01.02
미국	알파벳	GOOGL US	플랫폼	5,257	7.41	-4.23	01.02
미국	아마존	AMZN US	이커머스	3,714	13.37	1.73	01.02
미국	AMD	AMD US	AI 반도체	1,130	48.39	41.53	04.24
미국	씨게이트	STX US	레거시 반도체	253	188.71	177.07	01.02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 US	소프트웨어	539	-4.07	-3.27	09.04
대만	TSMC	TSM US	AI 반도체	3,013	4.35	0.65	06.05
미국	프리포트 맥모란	FCX US	일차금속	137	2.08	3.38	08.07
미국	메타	META US	플랫폼	2,214	5.07	5.87	09.04
미국	블룸 에너지	BE US	산업재	109	30.83	31.54	08.28

참고: 2026. 9. 11.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엔비디아 | FY2Q27 review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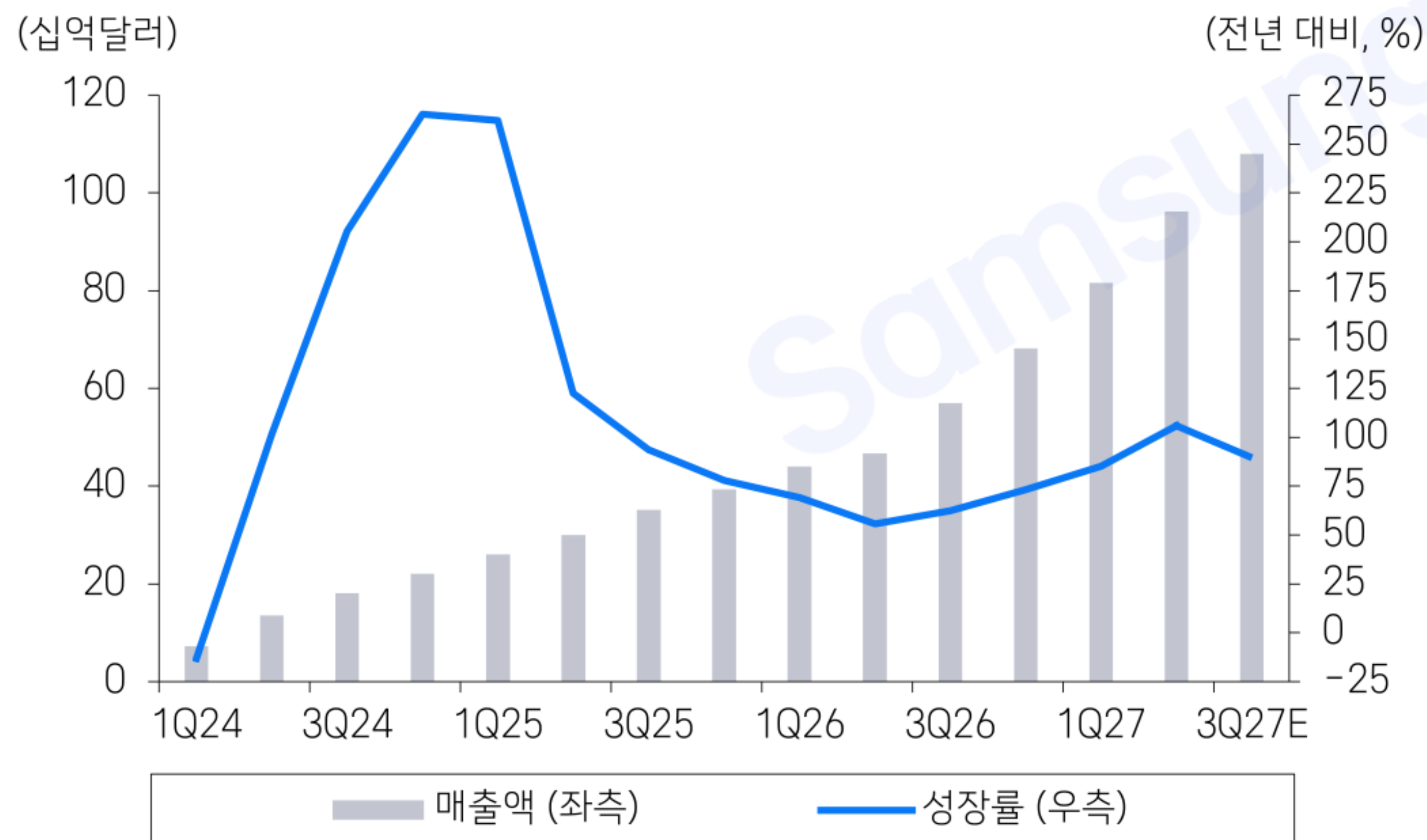
▶ FY 2Q27 실적과 FY 3Q27 가이드스 모두 컨센서스(Factset) 상회

-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전분기 대비 18% 성장하며, Factset 컨센서스 5% 상회
- 3분기 매출 가이드스 1,058~1,102억 달러(+12% q-q)는 FactSet 컨센서스를 4% 상회. Vera Rubin 출하가 시작되며, 전체 매출액의 20% 기여 전망

▶ FY 2028년 공급 제약을 감안해도 70% 매출 성장 전망

- 동사는 공급 제약을 감안하여 70% 매출 성장을 전망. 현재 고객 수요 기준으로는 100% 성장도 가능하다고 언급 (Factset 컨센서스 +45% 성장)
- 현재 12개월 forward P/E 16배에 거래 중으로, 여전히 섹터에서 펀더멘털 대비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

매출액 추이 및 가이드스



참고: 회계 연도 (1월 결산) 기준
자료: NVIDIA, 삼성증권

12개월 Forward P/E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알파벳 | 가속 성장이 아닌 '초가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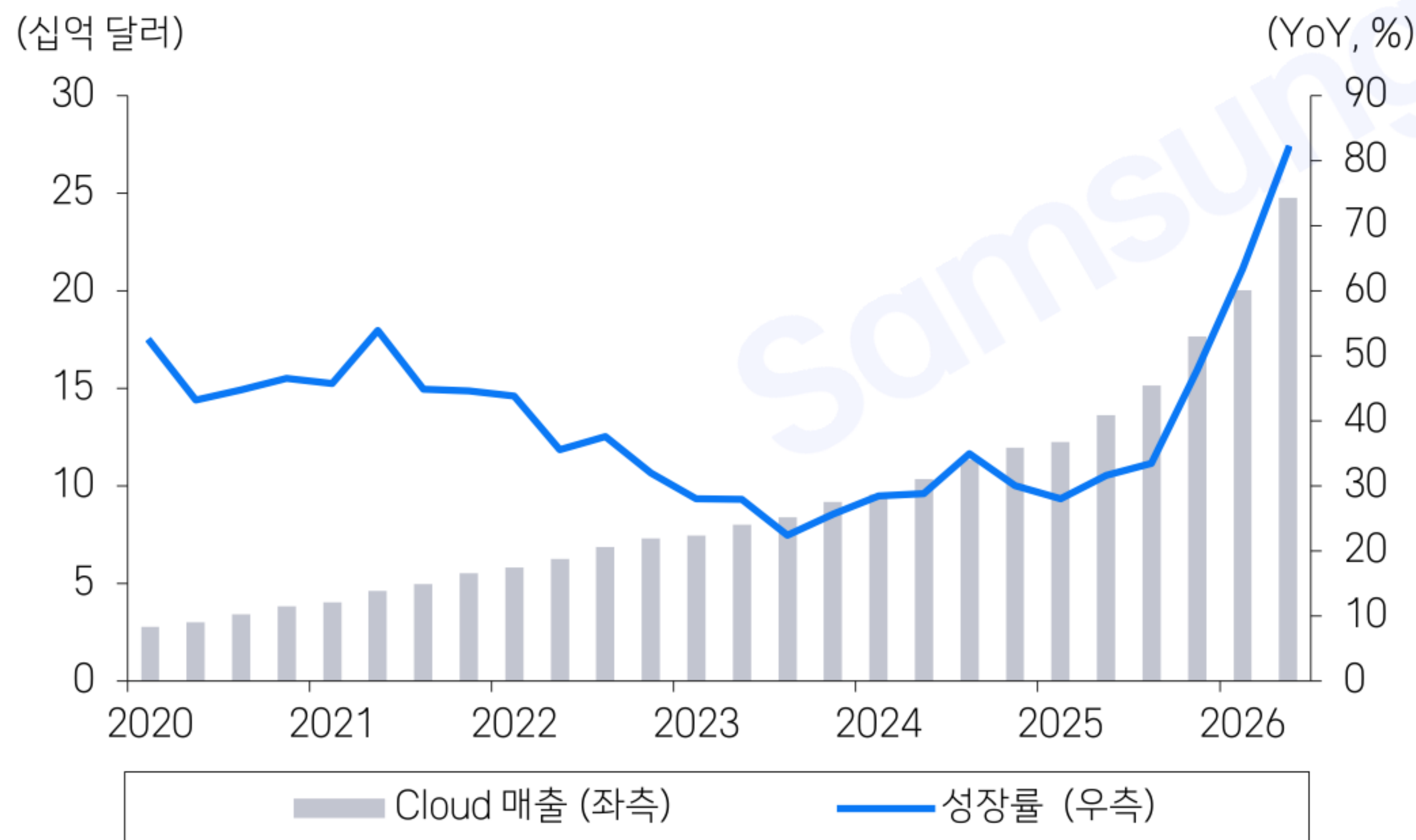
▶ 다시 한번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가속화. 그럼에도 주가는 CapEx 상향, 3분기 클라우드 마진 둔화 우려로 하락

- 최근 3개 분기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YoY 기준 47.8% → 63.4% → 81.8%. 영업 마진은 30.1% → 32.9% → 35.6%으로 지속 개선
- 다만 광고 매출은 가속 성장 구간을 지나 기저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며 실적에 아쉬움을 더함 (최근 3개 분기 성장률 YoY 기준 13.6% → 15.5% → 14.4%)
- 2026년 CapEx 가이드는 150억 달러 상향되고, 외부 컴퓨팅 임대료 인한 3분기 마진 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는 건조한 실적과는 반대로 하락

▶ 건조한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증명. 단기 리레이팅 핵심은 Gemini4의 프론티어 레이스 경쟁력 입증 여부

- 시장이 대량 CapEx 투자를 동반하는 클라우드 고성장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을 꺼리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프론티어 레이스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Alphabet, 삼성증권

12개월 Forward P/E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아마존 | 돈을 잘 벌어서 걱정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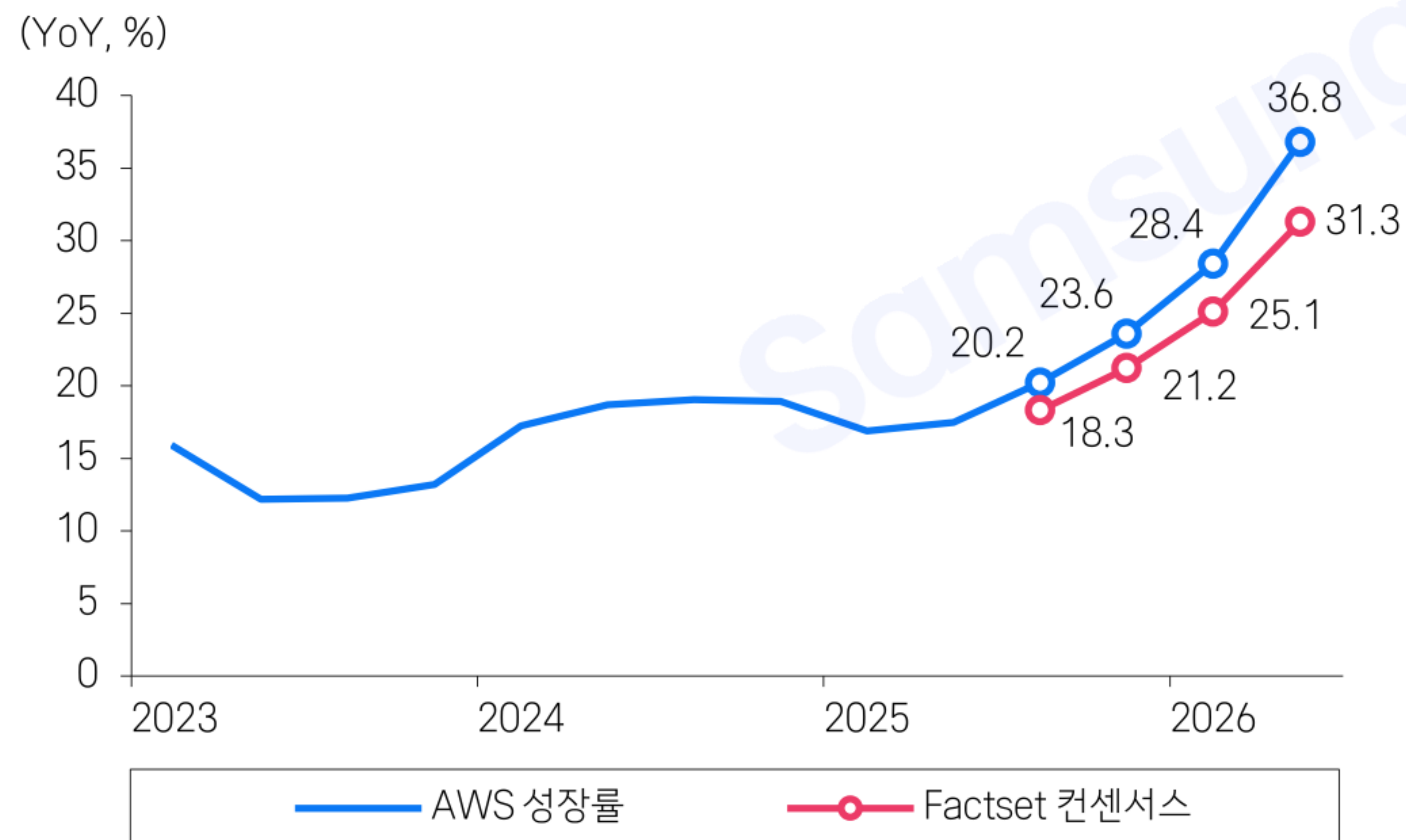
▶ AWS는 지난 분기에 이어 가속 성장 지속(4Q +23.6% → 1Q +28.4% → 2Q +36.8%)

- Factset 컨센서스 대비 Beat 강도 지속 증가 (4Q 1.9%p ▲ → 1Q 3.3%p ▲ → 2Q 5.5%p ▲)
- AWS 백로그는 4,960억 달러(+154% YoY, vs 1Q 3,640억달러)로 큰 폭 증가. 클라우드 Big3 중 유일하게 가속 성장 지속

▶ CapEx 가이드라인 상향, FCF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 가시성을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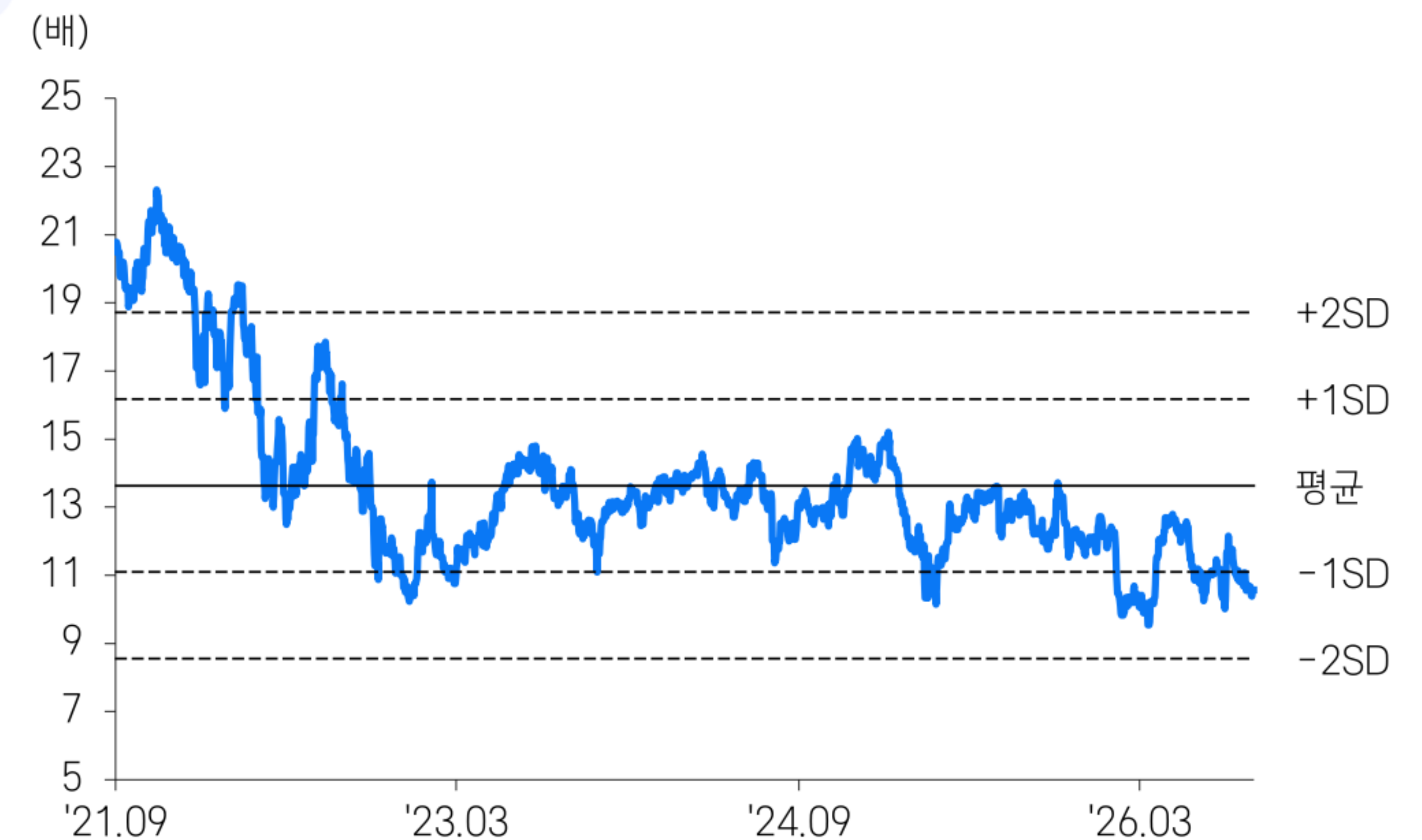
- AWS 영업마진은 39.4%(vs Factset 컨센서스 33.6%)로 서프라이즈를 기록. 일회성 이익 감안 시 37.9%로 여전히 컨센서스 상회
- 동사의 12개월 Forward EV/EBITDA는 10.6배로 여전히 매력적인 Valuation(vs 3년 평균 12.7배)

AWS 매출액 및 성장률 추이



자료: Amazon, 삼성증권

12개월 Forward EV/EBITDA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MD | 2Q26 Review – 내년에는 2배 넘게 증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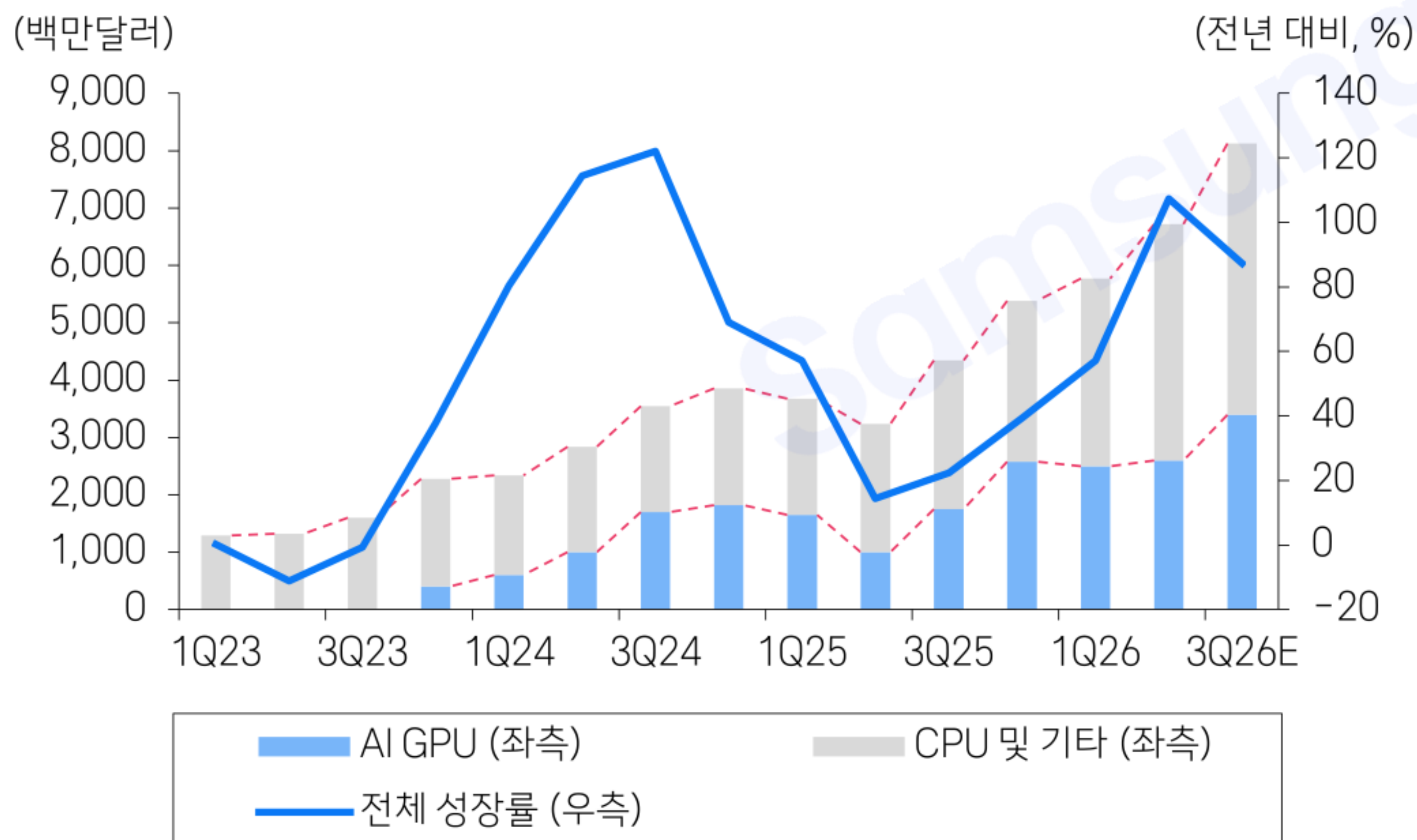
▶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드스 모두 컨센서스(Factset) 부합

-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분기 매출 신기록 경신. Non-GAAP 매출총이익률도 56.2%로 전분기(55%)보다 상회
-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형 CPU 매출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하는 등 성장률 가속화
- 차기 분기 매출액 127~133억 달러, Non-GAAP 매출총이익률 56.0% 제시. 각각 FactSet 컨센서스 125.4억 달러와 56.0%에 부합

▶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GPU의 시간. 여타 CPU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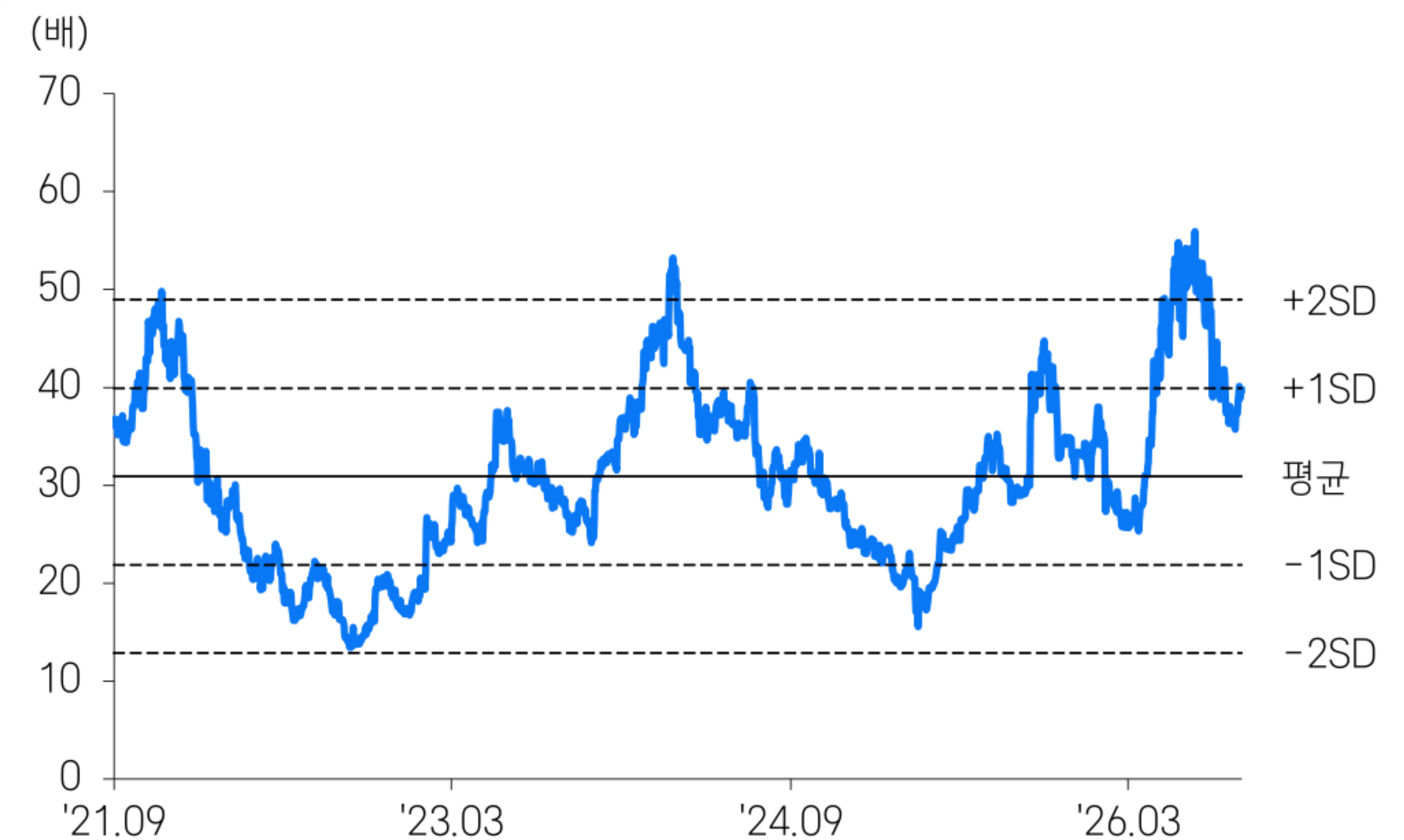
- 3서버 CPU가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되, 하반기와 내년 관전 포인트는 단연 GPU. 올해 4분기부터 Helios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반영 가능
- 밸류에이션(Bloomberg) 관점에서 CPU 경쟁사 인텔이 67배, Arm이 118배에 거래 중임을 감안하면, GPU 모멘텀도 보유한 AMD가 상대적으로 편안한 선택지

Data Center: 매출액과 성장률 추이



자료: AMD, Factset, 삼성증권

12개월 Forward P/E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씨게이트 | 경험해본 적 없는 수요를 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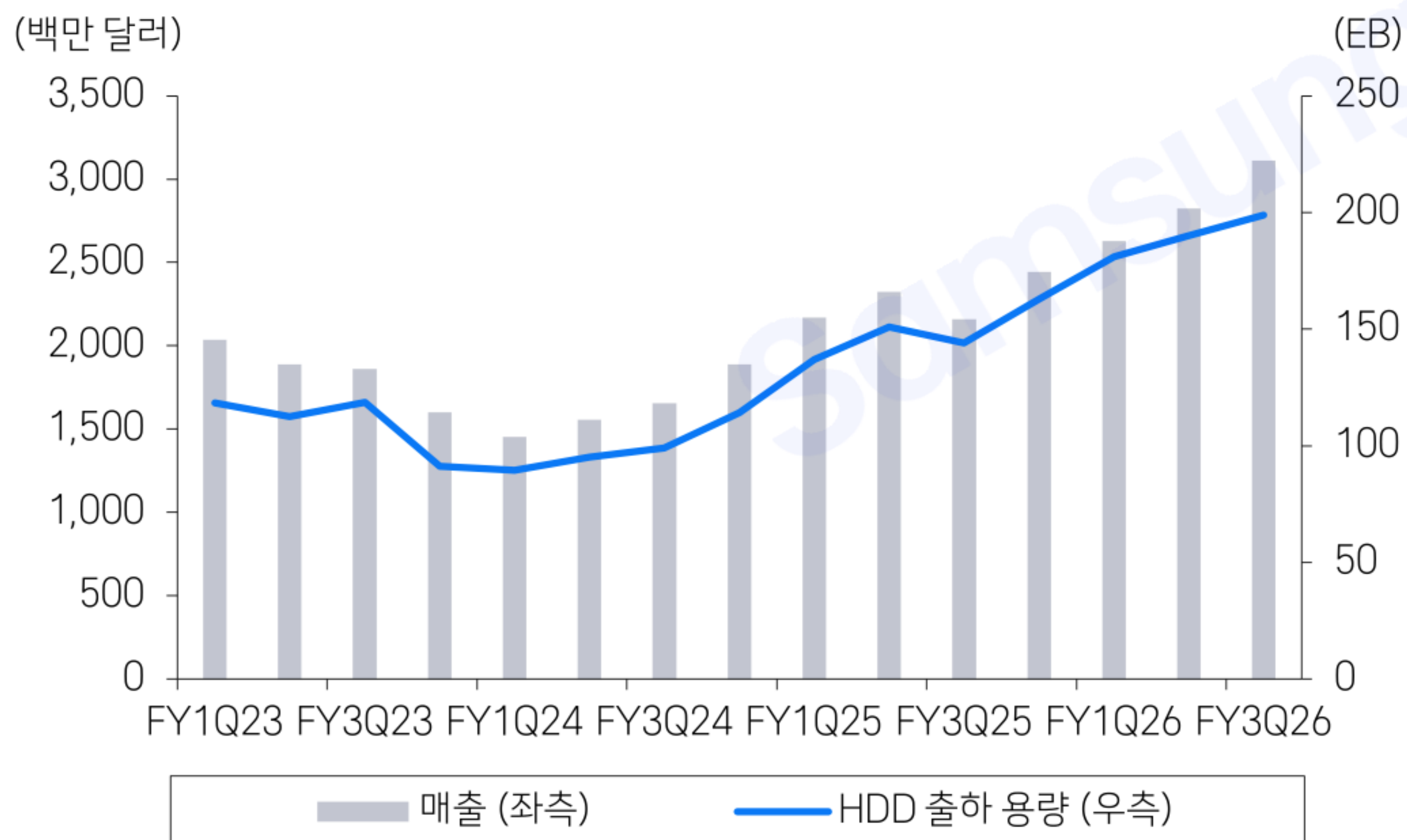
▶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HDD 수요, 구조적 성장 지속

- AI가 텍스트 위주에서 영상으로 진화함에 따라 데이터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저비용·대용량 저장 매체인 HDD 수요 강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씨게이트는 하이퍼스케일 고객들과 Build-to-Order(주문 생산형) 장기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실적 가시성 확보

▶ 경쟁사 대비 빠른 HAMR 상용화로 수익성 개선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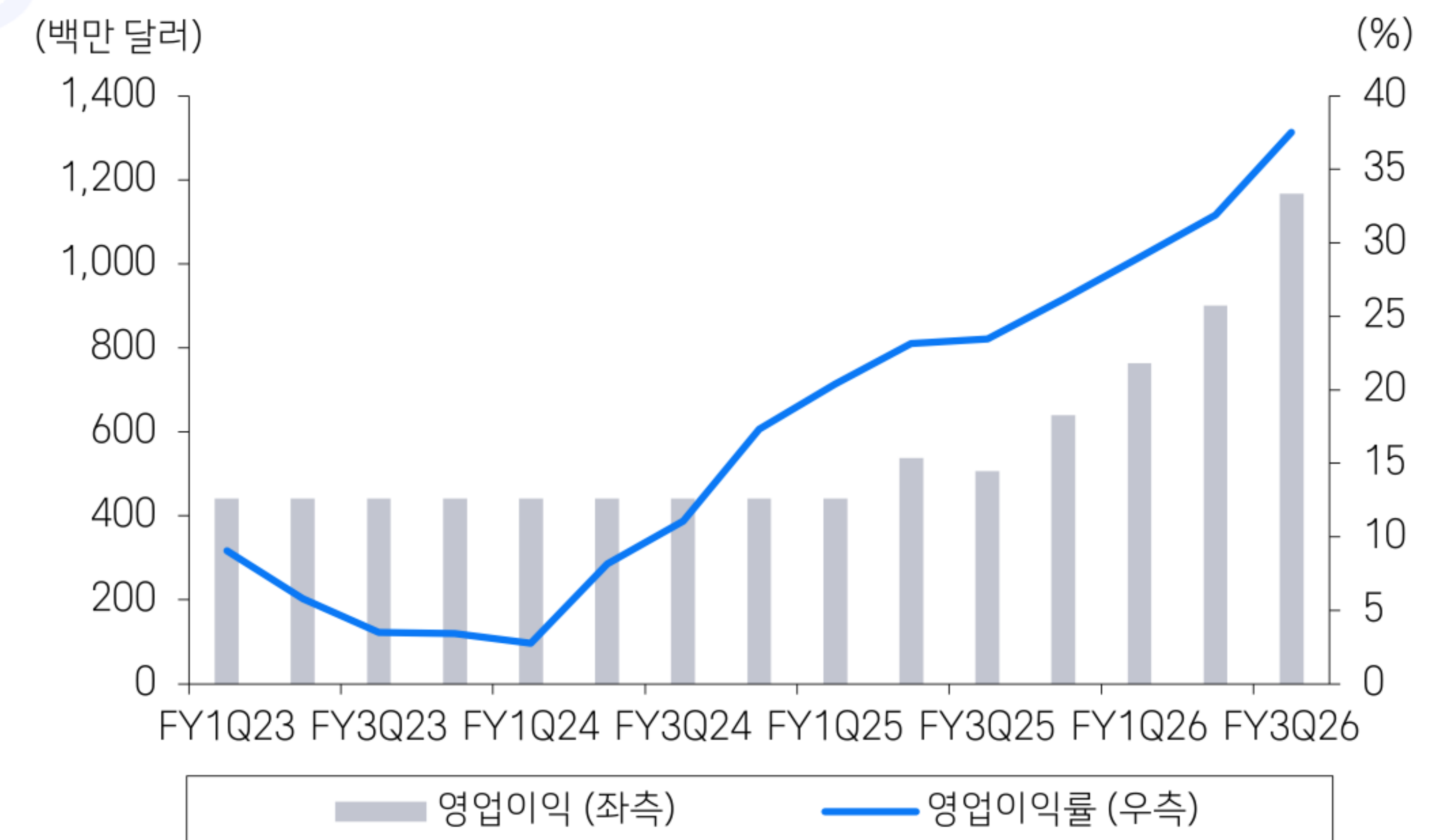
- HAMR(열 보조 자기 기록)은 플래터 수를 늘리지 않고도 기록 밀도를 높여 초고용량을 구현. 용량당 제조 원가가 낮아지며 마진율 극대화 가능
- Mozaic 4는 플래터당 4TB 이상을 구현해 드라이브당 최대 44TB를 제공. 3월 말부터 Mozaic 4 출하를 시작. Mozaic 4 비중 확대로 이익 성장이 가속화 가능

분기별 매출 및 HDD 출하 용량 추이



자료: 씨게이트, 삼성증권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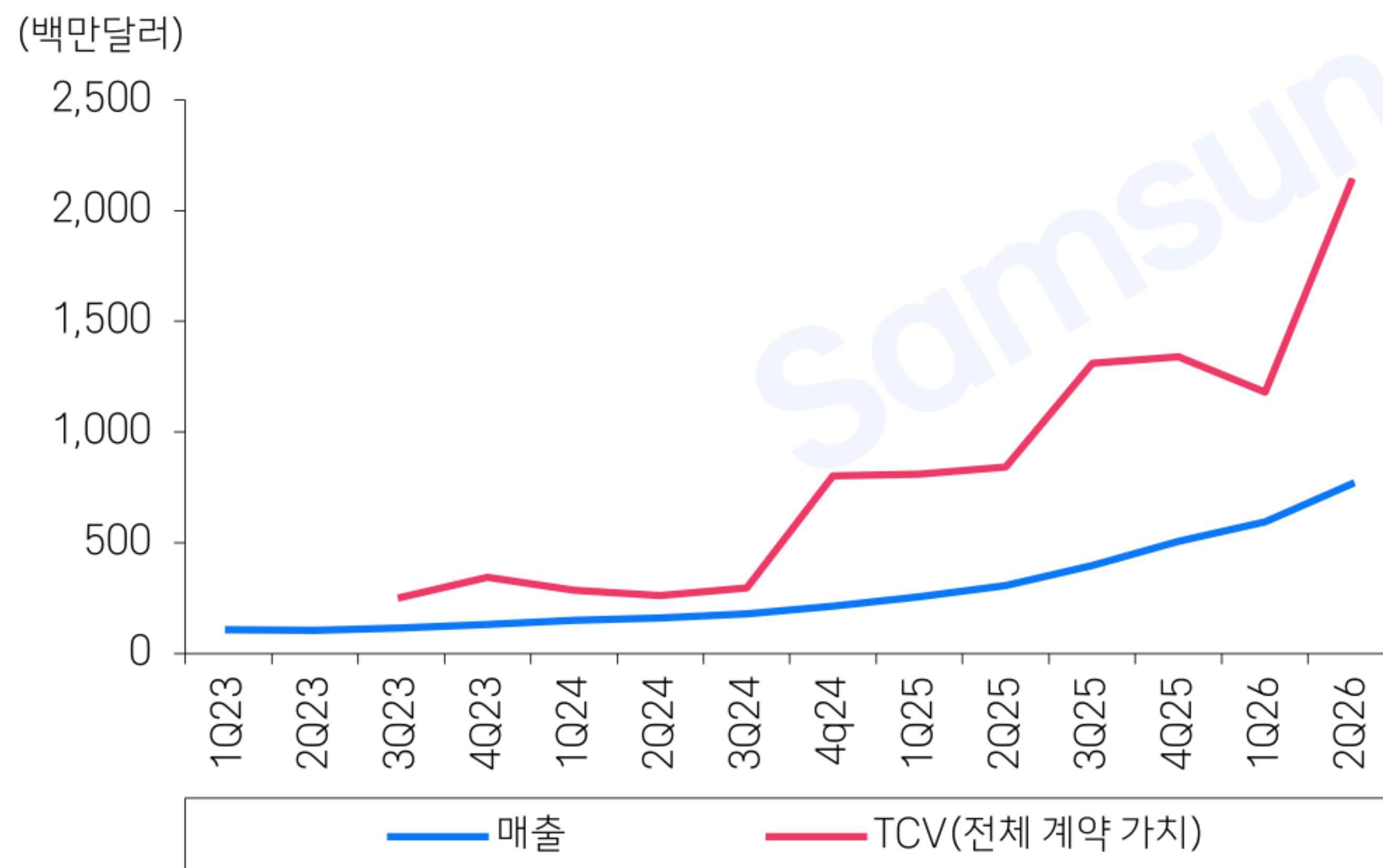
자료: 씨게이트, 삼성증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 소버린 AI와 함께 전고점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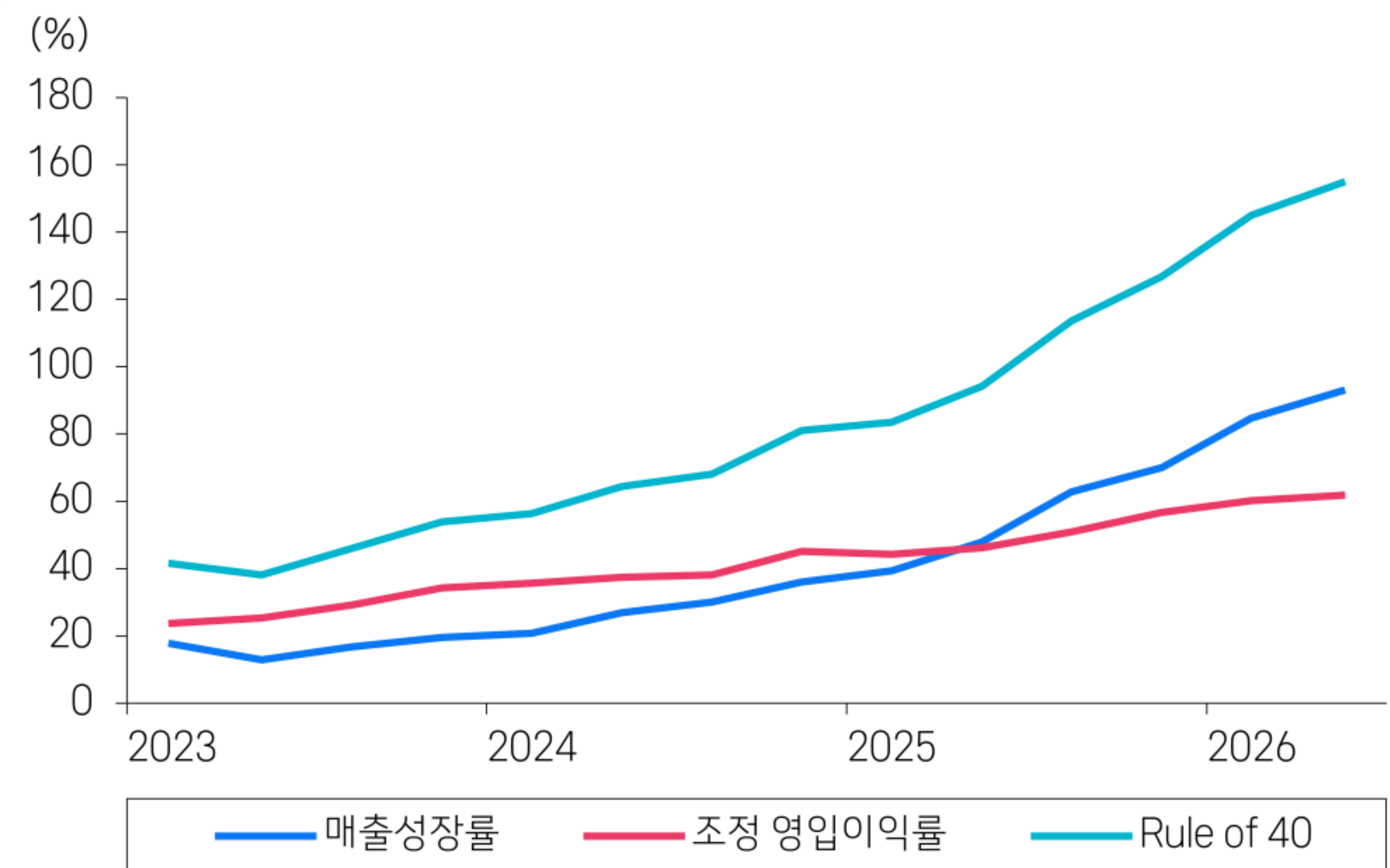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내러티브 반전 속 가장 높은 티어의 SW 기업

- 1월 AI의 SW 대체 우려에 따른 전방위적 디레이팅 진행(SaaS Pocalyps) → 저렴하지만 고지능 모델의 확산 → AI 모델 발전을 활용할 수 있는 SW에 긍정적
- 실적과 내러티브가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기업이 가장 높은 티어의 SW 기업. 팔란티어는 매출 성장 가속화(+93% YoY)와 함께 플랫폼 역량 재평가
- 소버린 AI를 강조하며, 기업의 AI 도입에서 핵심은 기업의 알파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라는 주장.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레이어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TCV(전체 계약 가치)는 매출 규모를 크게 앞서며 엔터프라이즈 AI의 수요를 증명. 매출 성장률 100% 돌파 기대감도 유효

매출 성장을 앞서고 있는 TCV(전체 계약 가치)



팔란티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Rule of 40



자료: Palantir Technologies, 삼성증권

자료: Palantir Technologies, 삼성증권

TSMC | 모든 칩은 우리를 거쳐야 합니다

▶ AI가 촉발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로 동사의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이 부각되는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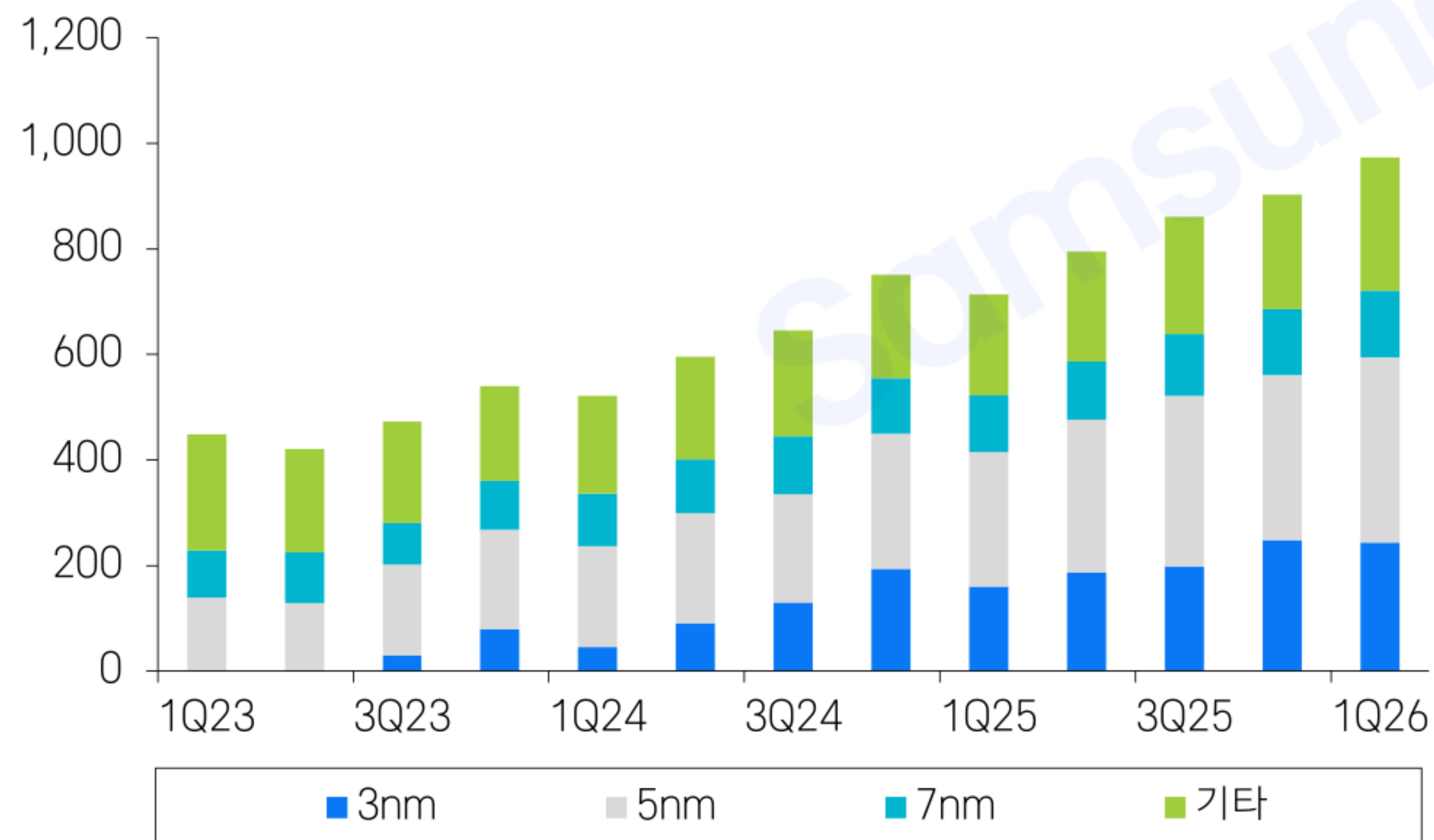
- 올해 CapEx 투자 금액을 크게 상향했음에도 타이트한 공급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

▶ 하반기 2나노 램프업에 따른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CoWoS 패키징, 첨단 공정 ASP 증가가 견조한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가능

- '26년 3나노 웨이퍼 생산량 계획 기존 15만 → 18만으로 상향 조정. 생산 라인을 첨단 공정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 효과 가능
- '26년 하반기 3nm 공정 가격을 최대 15% 인상하고, '27년에 5~10%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 CoWoS 패키징 웨이퍼당 ASP는 7나노 첨단 공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가능

공정별 웨이퍼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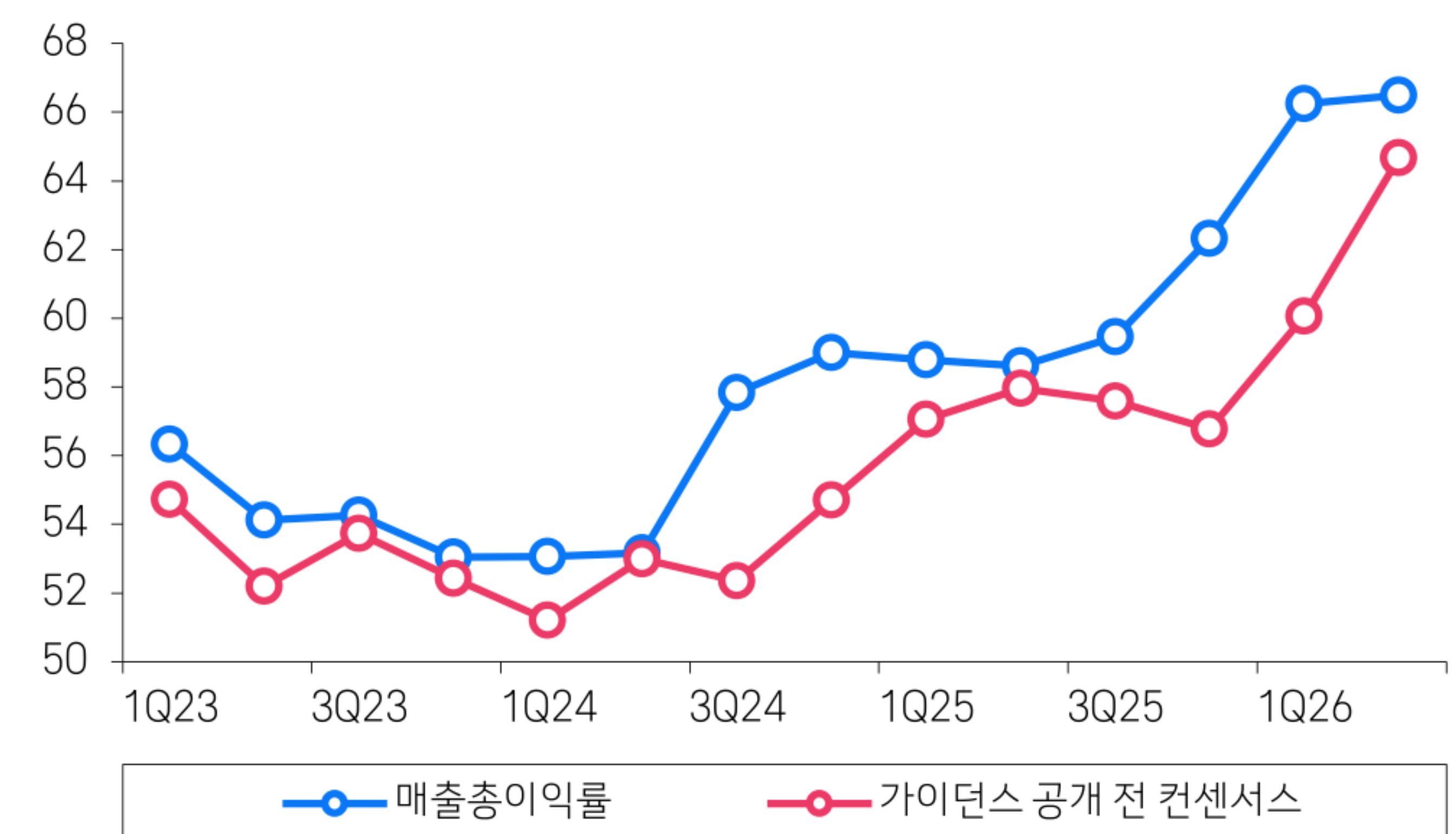
(십억 대만달러)



자료: TSMC, 삼성증권

매출총이익률 추이와 가이드언스

(%)



참고: 가이드언스 중간값 기준
자료: TSMC, FactSet, 삼성증권

프리포트 맥모란 | 구리 강세, 가격과 물량의 이중 레버리지

▶ 구리 가격 상승은 단기 이벤트보다 구조적인 수급 변화에 기반

- 관세 불확실성(무역법 232조 관련)에 대비한 미국 수요처의 선제 비축으로 구리 재고가 미국에 집중되며 글로벌 가시재고 중 뉴욕상품거래소(COMEX) 비중이 50% 이상까지 상승. 이와 반대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재고는 감소세를 보이며, 칠레 광산의 생산 차질까지 겹쳐 미국 外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전기차 확산으로 구리 수요는 지속 증가. 반면, 품위 하락과 긴 광산 개발 기간(평균 17년 소요)으로 신규 공급 확대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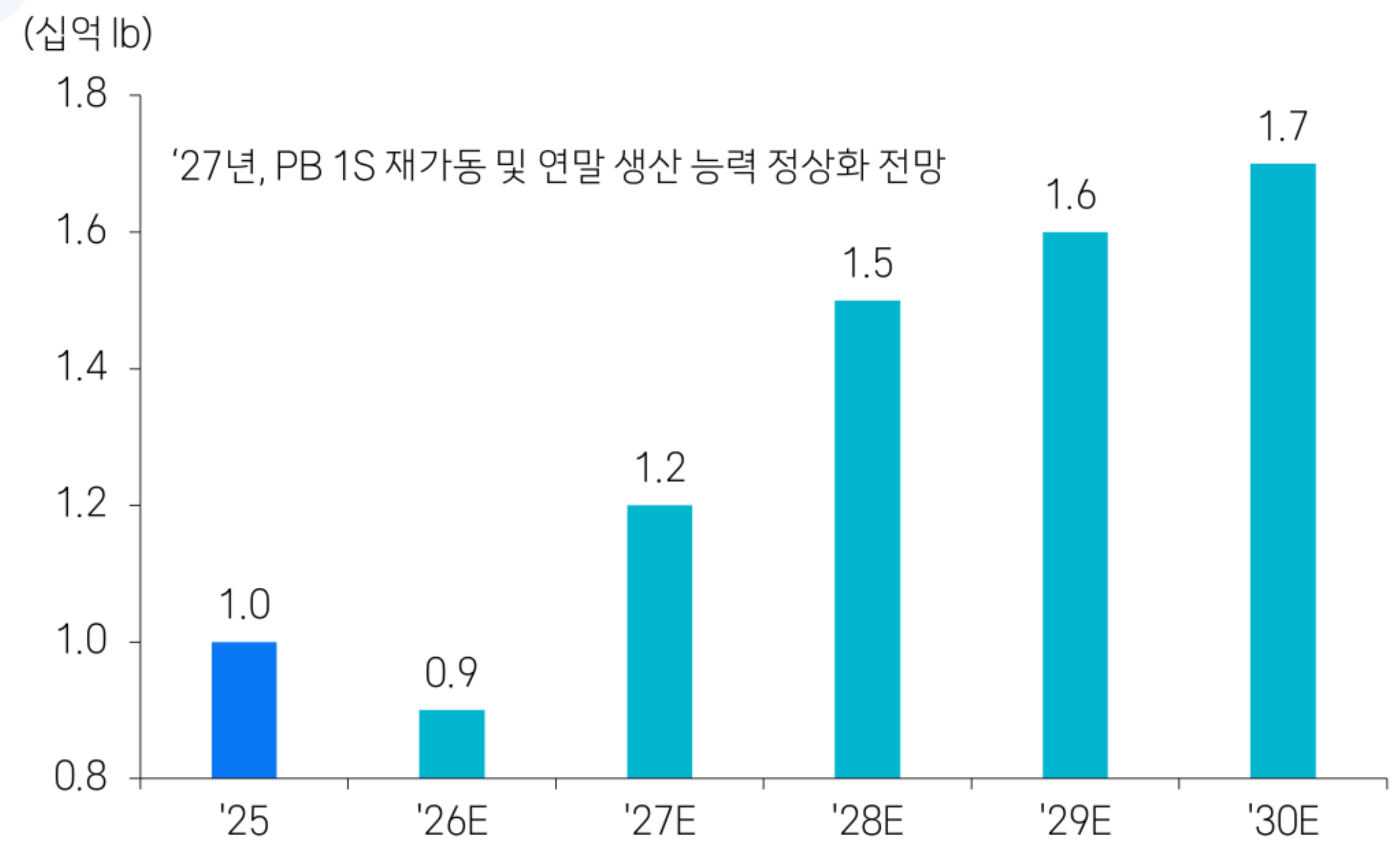
▶ 높은 구리 노출도와 생산량 회복이 만드는 이중 레버리지 효과 기대

- 동사의 매출 대부분이 구리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업이 다각화된 광산업체보다 구리 가격 상승이 실적과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반영
- 미국 최대 생산 기반 및 세계 최대급 광산 보유.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Grasberg) 광산 정상화와 기존 광산의 증산 프로젝트가 향후 물량 성장까지 견인

구리 가격과 프리포트 맥모란 주가 추이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구리 생산량 - 2027년 말부터 생산 정상화 가능



참고: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3개월물 가격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자료: 프리포트 맥모란, 삼성증권

메타 | 그다음은 Waterme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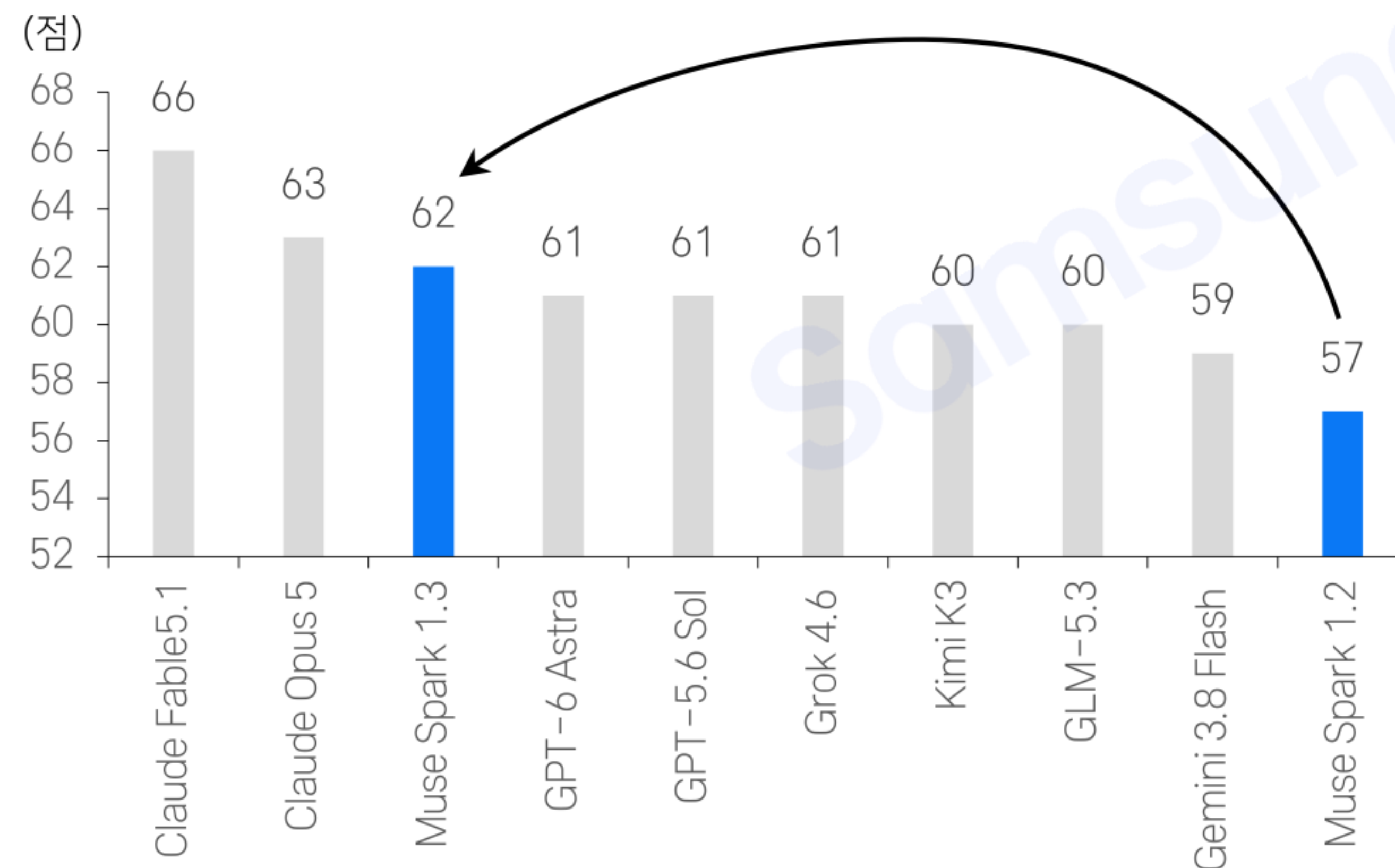
▶ 효율성과 성능을 모두 개선한 Muse Spark 1.3 출시

-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 기준 xhigh 61점으로 단숨에 5위, max는 62점으로 3위로 등극하며 최상위권 진입
- 같은 날 공개된 Gemini Flash high의 59점을 상회하며 프론티어 모델 경쟁력 재차 부각
- xhigh의 작업당 비용은 0.55달러 수준으로 58점 이상 모델 중 최저 수준,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Watermelon에도 관심 확대

▶ 밸류에이션은 밴드 하단, 남아 있는 이벤트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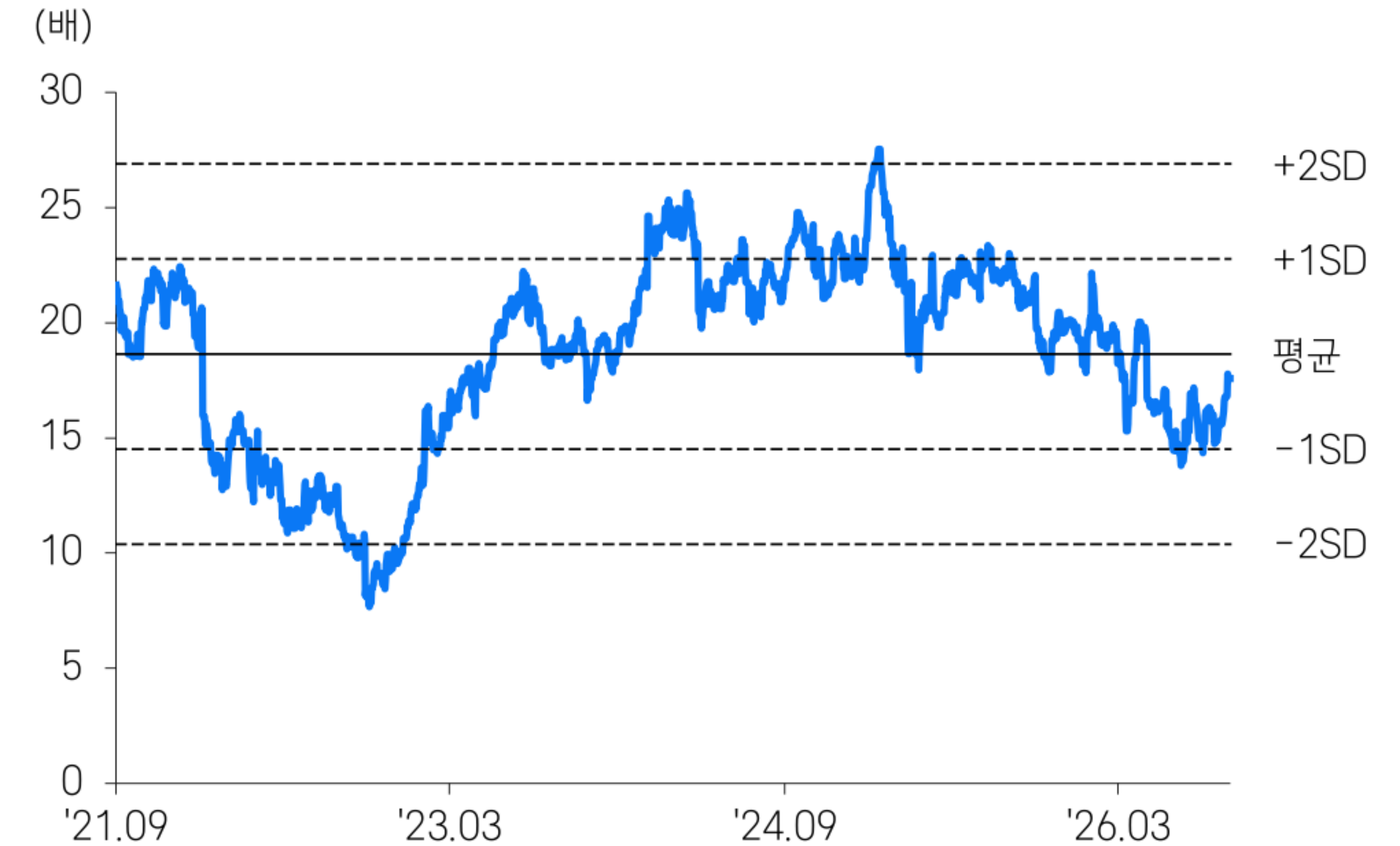
- 현재 메타의 12MF PER 17.6배로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 (vs 3년 평균 20.6배)
- 주요 주정부 소송 합의로 관련 불확실성 일부 완화된 가운데 9월 개인 에이전트 Hatch, 10월 Watermelon 공개 등 주가 촉매가 될 이벤트들에 주목 필요

Artificial Analysis 모델 순위: 단숨에 3위로 진입



자료: Artificial analysis, 삼성증권

메타 12M Forward P/E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블룸 에너지 | 전력 병목에 이어 규제 병목도 해결

▶ 전력 공급까지 90일,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

-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에 연결되어야 가동 가능하나, 신규 연결은 5년 이상 소요. 부지 내 발전 설비를 직접 두는 온사이트 방식으로 전력망 연결 없이 가동 가능
- 동사는 90일 내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업체 등을 고객사로 확보. 2025년 제품 수주 잔고는 60억 달러(+140%YoY) 기록

▶ 지역사회 반대가 커질수록 주목받을 연료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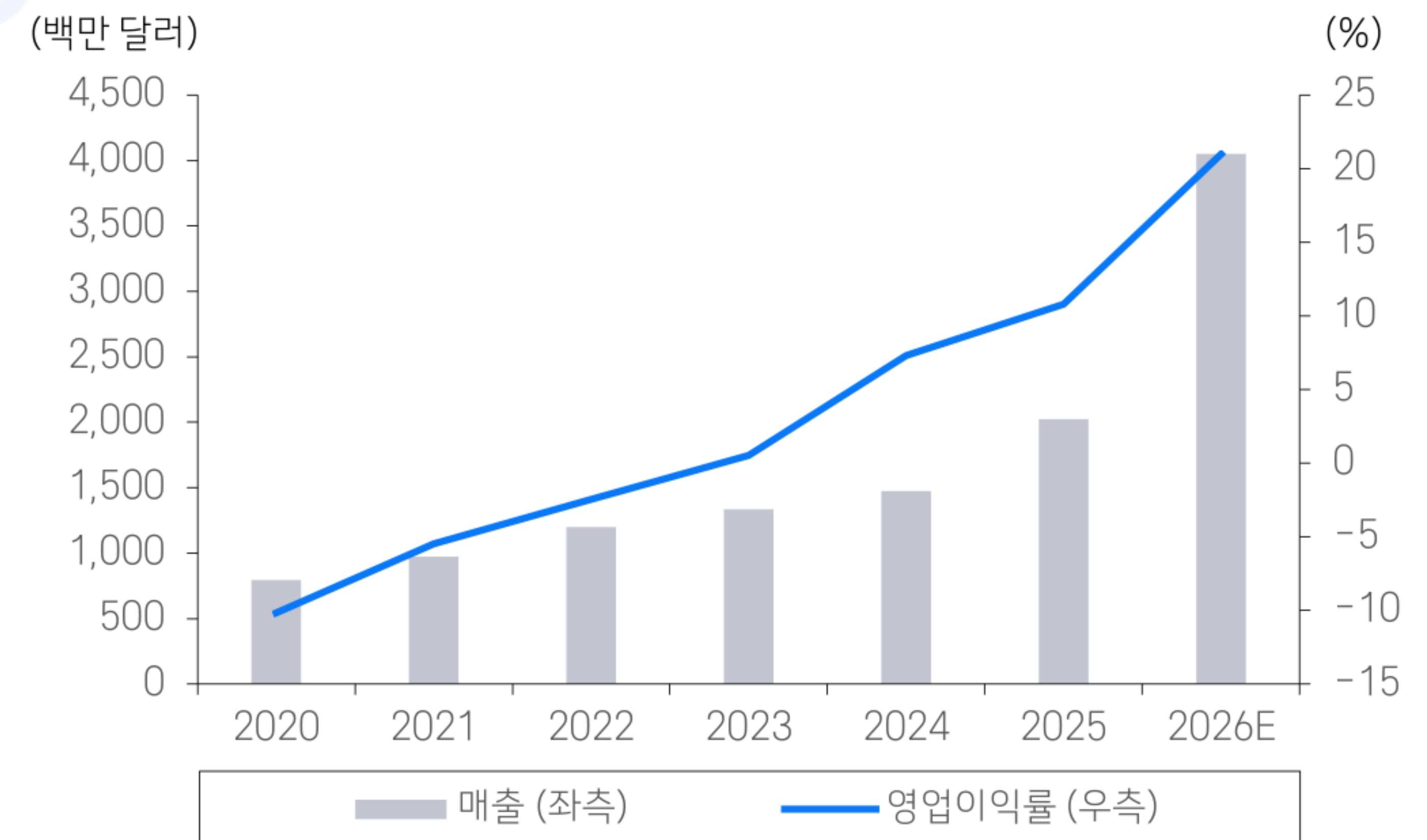
- 전기 요금 상승, 대기질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급증.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과 모라토리엄이 확산 중
- 연료전지는 연료를 태우는 연소 과정이 없는 만큼 오염 물질이 배출이 적어 인허가에 유리. 오라클(뉴멕시코), 네비우스(뉴저지) 프로젝트 모두 연료전지로 전환

빠른 공급과 적은 오염 물질 배출로 경쟁 우위 확보



자료: 블룸 에너지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참고: 2026E는 가이드스 중간값 기준
자료: 블룸 에너지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 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ing the 2030 World